

第260回國會
(臨時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6月26日(月)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간사선임의 건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방송위원회 위원(3인) 추천의 건
4.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가. 문화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5.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가. 문화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6. 2005회계연도기금결산
 -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 나. 지역신문발전기금
 - 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라. 문화예술진흥기금
 - 마. 국민체육진흥기금
7. 업무현황보고
 - 가. 문화관광부
 - 나. 문화재청

審査된案件

1. 간사선임의 건 4
 - o 간사(김재홍·최구식) 인사 4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3. 방송위원회 위원(3인) 추천의 건 5
4.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8
 - 가. 문화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5.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8
 - 가. 문화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6. 2005회계연도기금결산
 -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8
 - 나. 지역신문발전기금 8

| | |
|-------------------|---|
| 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8 |
| 라. 문화예술진흥기금 | 8 |
| 마. 국민체육진흥기금 | 9 |
| 7. 업무현황보고 | 9 |
| 가. 문화관광부 | |
| 나. 문화재청 | |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이승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흔히 정보화와 디지털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가 간의 문화교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17대 국회 후반기는 어느 때보다도 더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예컨대, 한류의 지속 확산 대책,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의 기회 확대 방안,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지원대책, 불법 사행성 게임의 근절 방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 문제 등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현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현안들을 위원회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존중하면서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회의가 17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고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계시는 김재홍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홍입니다.

이렇게 후반기에 한나라당 위원님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위원님들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 새로 오신 우리당 위원님과 야당의 위원님들 이렇게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역시 상임위원장을 맡으신 조배숙 위원님 여기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우리가 단합해서 문화관광입국으로 가는 데 힘을 합쳐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고 저도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강혜숙입니다.

계속해서 계셨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 환영합니다. 조배숙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감사합니다.

○강혜숙 위원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문광부 산하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하반기에는 되도록이면 고성이 일어나지 않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은 충분히 하되 언성은 높이지 않는 그런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윤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김재윤입니다.

이번 문광위에서도 창의 한국, 문화입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선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동대문 갑의

김희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 측 분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항상 편안하고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답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원호 위원** 윤원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위가 17대 국회 하반기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됐으면 합니다.

모두 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철 위원** 이광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병헌 위원** 전병헌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과 국가의 미래를 소관하는 문광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위원** 정청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경남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위원들만 다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문광위에 처음 왔습니다. 문광위에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은 배움 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숙 위원** 박찬숙입니다.

새로 뵙게 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문화선진국을 향해서 자유언론이 꽃피는 문화관광위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시고 열심히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위원** 박형준입니다.

첫날부터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 함께 상생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위원** 이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헌법의 지도 원리 중의 하나가 문화국가의 원리라고 배웠습니다. 문화국가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고 만개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화를, 문화적 기본권을 더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문화관광위원회가 되고 문화관광위원이 되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조배숙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경북 경주 출신 정종복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민주당의 손봉숙입니다.

신·구 위원 모두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세 위원** 민주노동당 천영세입니다.

17대 하반기 위원님들과 상임위를 같이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시지 못한 위원님들은 다음에 인사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 활동을 보좌해 주실 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최민수 전문위원입니다.

빈성림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승철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재유 입법조사관입니다.
정환철 입법조사관입니다.
정연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장태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서은철 입법조사관보입니다.
남미숙 사무원입니다.
박은영 사무원입니다.
서선례 사무원입니다.
(직원 인사)

1. 간사선임의 건

(10시33분)

○위원장 조배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 각 교섭단체에서 협의를 거쳐 추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재홍 위원님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최구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로 이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위원, 한나라당의 최구식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재홍·최구식) 인사

○위원장 조배숙 그러면 선임되신 두 분의 간사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 저를 간사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광위원회가 문화·언론·예술·관광·체육·종교 업무를 원활하고 제대로 수행해서, 의정을 제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문화·예술·관광입국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다음은 최구식 위원께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위원 심부름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조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국회법에는 소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여야 간사로 내정된 두 분 위원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17대 전반기와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에 합의된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위원, 전병헌 위원, 정청래 위원, 한나라당의 박형준 위원, 장운석 위원, 민주당의 손봉숙 위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김재윤 위원, 노웅래 위원, 윤원호 위원, 한나라당의 정종복 위원, 김충환 위원,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위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 정종복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이광철 위원, 강혜숙 위원, 이광재 위원, 한나라당의 이재웅 위원, 정병국 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이광철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김재윤 위원, 윤원호 위원, 한나라당의 이계진 위원, 박찬숙 위원, 민주당의 손봉숙 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이계진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사위원 간에 합의된 대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개 소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평소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훌륭한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3. 방송위원회 위원(3인) 추천의 건

(10시38분)

○위원장 조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송위원회 위원(3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송법 제21조제2항에 의해 우리 위원회가 방송위원회의 위원 3인을 국회의장에게 추천·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기 방송위원회 위원은 금년 5월 6일에 임기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미 추천이 완료되어 새로운 제3기 방송위원회가 구성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야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늦었지만 오늘 추천을 하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임동훈, 최민희, 김우룡 3인의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 및 이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동훈, 최민희, 김우룡 3인을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천영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천영세 위원 문광위원회 후반기 출범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으로 유감을 표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방송위원회 3기 구성, 국회 몫으로 6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상임위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그 안건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이 회의 개최 직전에 저도 몇몇 위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지금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상임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이미경 의원님과 여야 간사들과 이 일의 중요성과 고민의 일단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대로 인선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른바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 몫 세 분에 대해서 평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인선 절차는 우

리가 2기 방송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당시에 우려했던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권의 각 정당 간 나눠 먹기, 철저한 정실과 밀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계, 국민들의 평가였습니다. 2기 방송위원회 구성에 대한 평가가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절차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위원회는 그냥 출범한 게 아닙니다. 방송위원회는 참여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자기 위상으로, 자기 위치에 제대로 올려놓기 위한 방송사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제 시민·사회의 오랜 기간의 열망, 기대 속에서 탄생된 것이 방송위원회입니다.

지금 신자유주의 물결, 더군다나 한미 FTA 이후에 끊임없이 상임위나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화두로, 과제로 제기되었습시다. 우리는 방송의 주권,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속에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 중요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방송위원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요직, 어떤 공공기관의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보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비공식적으로, 철저히 안개에 가려진 속에서 명단을 지금 이 자리에 내놓고 추천하고 이것을 가결하자고 하는 이 부분은,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오늘 새로 이 상임위에 오신 여야 몇몇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오늘 내일 이후에 다룰 안건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검증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될 것인지 저도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명단 올려놓고 이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이력서에 간략한 약력 한 장씩 놓고서는 이 막중한 방송위원, 그것도 상임위 몫 추천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을 무슨 인사청문회라든지 발목 잡기식의 과도한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온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는 상임위에서의 3기 방송위원 추천 건을 좀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넘어갈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 위원 천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 절차를 이 자리에서 의논을 해서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이 후보들을 놓고 적어도 자체 위원들 간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을 합니다.

두 교섭단체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교섭단체 위원들은 명단을 받아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자리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배숙 예, 말씀하시지요.

○김재홍 위원 김재홍입니다.

방송위원 추천 절차에 관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혼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국회 내의 인사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또 방송법에 따라서위원의 선임 절차는 국회의 원내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열심히 검증했고 인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두 분 비교섭단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양당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원내교섭단체 의원이 아닌 두 분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린 것은 지난 주말에 역시 인사 검증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선하는 데서 오는 보안상 때문에, 또 주말이 겹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배숙 두 분 위원님께서 이의를 말씀하셨고 김재홍 간사님께서 양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께서는……

○천영세 위원 여당 김재홍 간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그런 구분, 그런 경계를 두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그런 한계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국회 전체, 원내 이 부분과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직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우리 상임위에 속한 위원께서는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 위원장, 원 구성에 있어서의 오랜 기간의 의정, 국회의 비민주적이고 철저히 비공개적인, 이른바 교섭단체 중심의 독점·독식 그런 불투명한 방식에 의한, 반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한 선출에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내 인선뿐만 아니라 주요 국회에서 책임져야 될 인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의 절차하고도 이것은 직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나 이렇게 구분해서 볼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로서는 방송위원회의 중요성, 정말 어떤 산고를 거쳐서 그것이 출범했는가, 이 시대 방송의 과제에서 방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 위상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교섭단체, 각 당별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서 인선해서 여기에 추천안을 내놓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실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상임위원회에 속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충분히 그 부분 검증들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 당에서 내용적으로 인선에 있어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거기에 해당 주무 상임위원회에 속하신 문광위원들께서 어느 정도로 당내 논의에, 검증에 참여하셨는지,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그런 논의를 당내에서 거치셔서 굳이 나누어서 비교섭단체 두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겠다고 그런다면 그 점은 애써 동의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당 간사를 포함해서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청래 위원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위원님과 민주당의 손봉숙 위원님의 분노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위원 추천 건뿐만 아니라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상 국회의장도 누가 되는지 모르고 상임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고, 커닝 패이퍼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기억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본회의장에서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국회의 관례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손봉숙 위원님하고도 그런 논의를 했고, 박찬숙 의원님하고도 그런 법을 같이 내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감이고 동의를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던 전반적인 국회의 운영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문제 안에 이 방송위원 추천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방송위원 추천 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같이 노력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국회의 운영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포괄적인 문제 안에 이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누가 어떻다, 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여당에서,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방송위원으로 추천 의뢰한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가장 무리가 없는 인사로 우선 추천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분 비교섭단체 위원님들의 불만, 보니까 두 분 어처구니 없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는 위원들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방송위원 3기 임명이 지금 법적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안고 있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해서 모든 것을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추천해 올라온 이 세 분은 큰 무리가 없으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배숙 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솔직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우리 천영세 위원님과 손봉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너무 진행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안전도 많아서 그러니까……

○천영세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영세 위원 우리 사회의,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관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혁신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혁신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제해 드린 거예요. 여기 피감기관의 간부들께서 와 계시고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가 국회입니다, 상임위예요. 민주주의를 제일 올바르게 세우는 부분입니다. 내용적인 민주주의, 절차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하자,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양당이 내부적으로 충분한 인선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하기에 그러면 이른바 교섭단체 양당의 인선 과정에, 검증 과정에 참여하신 주무위원들이신 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동참을 하셨는지 제가 여쭙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들께서라도 일정하게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자꾸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로 구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하고 입씨름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배숙 최구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구식 위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행은 다들 오랜 역사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회 본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중요한 법안들이 본회의장에서 1분도 안 걸리고 통과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의를 달지 않고 올라온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외국 선진국도 다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내용도 모르면서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는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교섭단체에서 올라온 견해는 충분한 의사를 수렴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물으셨는데 저희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견수

럼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영세 위원님과 손봉숙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천영세 위원님과 손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국회 운영시스템의 문제로서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지금 이것을 빨리 선임해야 되는 어떤 법적 시한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표결 없이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어떻습니까? 그 부분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영세 위원 양해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양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위원회 위원 3인을 간사 간에 합의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열여섯 분 중 찬성 열네 분, 그리고 기권 두 분으로 이 안건은 간사 간에 협의해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배숙 예, 정병국 위원님!

○정병국 위원 방송위원 선출 과정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손봉숙 위원님이나 천영세 위원님의 문제제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바뀌 가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대로 넘어가면 자칫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 방송위원을 추천하는 절차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듯하게 넘어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방송위원 선출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문광위 위원들은 두 달 전에 이미 그 시한을 앞두고 각 위원들이 방송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숫자 제한 없이 추천을 했고 추천된 40여 명의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 문광위 소속 위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그 검증한 결과가 오늘 추천한 위원이 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조배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간사 위원들 사이의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이번 회기에 결산 관련 안건은 준비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상정만 하고 검토보고 등 심사 절차는 폐회 중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8월 25일까지 이것을 심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기간 안에 이것을 심사·검토하는 절차가 있음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산 관련 안건은 업무현황보고와 함께 상정만 하고, 그리고 업무 현황보고 순서를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도중에 이제진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자기소개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제진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지요.

○이계진 위원 제가 브리핑 좀 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새 위원장님 맞아서 열심히 일하겠고 제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축하드립니다.

4.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가. 문화관광부 소관

나. 문화재청 소관

5.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부 소관

나. 문화재청 소관

6. 2005회계연도기금결산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나. 지역신문발전기금

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마. 국민체육진흥기금

7. 업무현황보고

가. 문화관광부

나. 문화재청

(11시03분)

○위원장 조배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 계연도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재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업무현황보고,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이어서 문화재청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처·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유관기관 등을 보면 60여 개의 기관에 달합니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잡힌 날짜가 나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주요기관인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틀 동안 받기로 하고 3일과 4일째 되는 날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중 업무현황보고 시 배석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장관이 기관장과 단체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기로 하고 정식 보고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질의는 문화관광부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예, 말씀하십시오.

○정병국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장 구조를 보면 산하단체 기관장들이 도저히 앉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시고 이러한 상태로, 이 회의장 구조를 가지고

계속 문화관광위원회를 꾸려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거나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방청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방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산하단체의 기관장들이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회의장 구조를 가지고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회의장을 바꾸든지, 회의장 구조를 바꾸든지 하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배숙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국회사무처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조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17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문화관광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종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맡은 일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창조하는 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인식 아래 본부와 소속기관 그리고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최선의 정책들을 개발·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문화기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초예술이 탄탄해야 우리 문화를 꽃피울 수 있고 문화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아 예술진흥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예술 창작, 유통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민족문화의 원류를 발굴·개발하는 한편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한브랜드 대표사업 개발 등 한류를 지속·확산시키는 정책

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를 향한 문화적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재외문화원을 해외 문화활동의 교두보로 특화 운영하면서 세계 문화권별 전략 거점의 문화원을 확충해 가는 중입니다.

넷째로 문화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저작권의 보호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각종 문화산업의 투자·유통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등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저·여가·건강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면서 이와 연계된 스포츠여가산업의 육성과 작년에 이관받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4월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올해를 현장 중심 문화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겪으면서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주요 과제들을 손수 점검하여 우리 문화관광부가 명실상부하게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문화정책을 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의 성원을 선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의 주요 간부와 소속기관장 그리고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룡 차관입니다.

이보경 차관보입니다.

박양우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김장실 종무실장입니다.

성남기 문화정책국장입니다.

위옥환 문화산업국장입니다.

백익 문화미디어국장입니다.

김찬 관광국장입니다.

조현재 체육국장입니다.

조창희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이영진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추진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강성일 예술원 사무국장입니다.

황재우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입니다.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입니다.

권경상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신선희 국립중앙극장장입니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김철호 국립국악원장입니다.

김홍남 국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소속 기관장 인사)

다음은 유관기관장입니다.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송재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김용배 예술의전당 사장입니다.

노태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입니다.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입니다.

조준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남기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입니다.

강기석 신문유통원 원장입니다.

이창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입니다.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입니다.

유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장명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입니다.

김종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민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재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박조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최경식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유관기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장관님이 계속 보고하시겠습니까

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자세한 업무현황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잠깐만요. 정책홍보관리실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요. 또 문화재청 업무보고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홍보관리실장 2006년도 문화관광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현황, 현안사항, 입법계획에 대해서 이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구는 문화관광부는 1차관보 2실 6국 1단, 9개 소속기관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부 437명, 소속기관 1511명입니다.

(「현안사항만 보고받기를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배숙 현안사항만 보고를 하십시오. 물론 오늘 처음 출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중요한 현안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양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22쪽 큰 제목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 추진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금년도 2월 3일 정부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을 했고 저희는 4월 10일부터 문화관광부 자체 한미 FTA 추진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한미 FTA 제1차 협상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는 저작권과장 등 6명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협상동향은 지난 1차 협상에서는 5월에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의견을 교환했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노동·환경 등 15개 분과와 2개 작업반을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제1차 협상 전에 두 가지 원칙 곧 양측 이익의 균형 도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 이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관련 주요 협상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경부·정통부·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다 관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호 교환한 협정문을 중심으로 입장을 교환하고, 통합협정문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측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 사항과 미국이 요구한 택배 법률서비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 차이가 커서 제2차 협상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디지털 제품의 포괄 범위 등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고 통합협정문을 마련했습니다.

저작권 분야는 미국 측의 요구항목, 언론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요구항목과 우리 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격권 보호 등에 대해서 상호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협정문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협상에서 이번에 마련한 통합협정문과 7월에 양측이 교환하는 서비스 분야의 유보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작년도 11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을 벌여서 경찰에서는 21550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487명을 구속했고 검찰에서도 86명을 구속했습니다.

금년도 4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이제 후속조치로 사행성 기준 강화 후속법령에 대해서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법 기기를 개·변조하거나 환전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사행성 게임이 사회문제화가 되었고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크린경마나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이른바 킬 게임이 주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동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유업종으로 되었던 PC방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변질되는 사회 문제가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규칙에 강화된 사행성 기준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사행성 게임물의 결정기준을 강화해서 투입액을 하향 조정하고 자동진행을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행성 게임물을 재심의해서 더욱더 강화를 하고 유통 차단 그리고 사후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장치 칩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을 신설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시설기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PC방에 대해서도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중단속도 관계부처와 함께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ARCO 주빈국 행사 지원 대책입니다.

ARCO 주빈국 행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아트페어 즉, 미술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주빈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사는 2007년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개최가 되고 250개 화랑이 참여하는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커미셔너 사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회계 관련 규정 준수 문제와 관련하여 커미셔너는 이것을 정부 간섭으로 인식을 하고 사퇴 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후임 커미셔너를 선정 위촉, 원래 6월 23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ARCO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ARCO 주빈국 조직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문화관광부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스페인의 ARCO 운영위원회 측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내년도 주빈국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25쪽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정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이미 특별법 제정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지금은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에서 특별회계 설치조항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해서 지금도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대책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확보, 법정종합계획 수립, 전체 재원 규모 확정 및 관계부처 본격 협의 등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회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전당 운영으로 수익이 본격적으로 창출되는 2010년 이후에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조항을 만약에 삭제할 경우에는 법사위에 문광위원장 명의의 의견 표명이 필요한 시점에 있고 저희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간사위원과 협의를 한 결과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8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강혜숙입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남북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문화교류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자료에 대한 연구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제 인쇄출판박람회가 열리고 동서 고인쇄기 비교전이 열리는데 북쪽의 고인쇄물은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하는 반쪽만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회가 날 때마다 북쪽의 고인쇄물 보존실태와 남북교류 가능성을 타진해 왔습니다.

고인쇄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교류가 쉽고 학술적 성과가 엄청날 수도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를 발명해서 사용한 선조들의 엄청난 전적문화유산에 대한 그동안 남쪽만의 연구에서 이제는 남북이 함께 하는 연구 및 자료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쪽 고인쇄 전적자료에 대한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도 박물관을 통해서 고인쇄물 교류에 대한 제안을 북측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제안들이 더욱더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의 민족고전연구소에 의하면 북쪽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들이 북쪽의 역사박물관과 김일성대학 도서관 그리고 기타 기관과 개인 소장 등에만도 150만 권 내지 200만 권이 훨씬 넘는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북한과 협의를 거쳐서 남북 공동 전적조사가 합의된다면 기본자료 교환, 토론·연구, 한국의 인쇄문화특별전 개최, 조사결과보고서 간행, 기본적인 사항 웹서비스, 수장고 건설 지원 등의 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북쪽의 고서·고문서 등에 대한 해제와 목록화 사업, 전산화 작업, 남북한 자료 공유시스템 개발, 관련자료 발굴, 분류사업 추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문화재청, 고인쇄박물관 등의 기관도 적극 함께 참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청 모두가 관련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본 위원이 한불 수교 120주년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를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들이 작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문제의식도 없고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용에 보면 한국패션특별전에 1억 원을 지원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성남기 예.

○강혜숙 위원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한국패션협회 맞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성남기 예.

○강혜숙 위원 자문위원인 이상봉 씨가 이 단체의 이사지요?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성남기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여기에 참가합니다. 맞지요?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성남기 예.

○강혜숙 위원 켈리스트 양성원 씨도 자문위원이지요?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성남기 그것은 지금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자문위원인 켈리스트 양성원 씨가 9월로 예정된 자신의 공연에 48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인 박신의 교수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경희대 문화예술연구소 주최로 세미나를 열면서 4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최준호 자문위원장은 연극원 교수인데 7400만 원을 지원받는 공연단체 우투리의 이승엽 대표와 같은 학교 같은 과 동료 교수입니다. 또 전무후무라는 공연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는 무용평론가인 이종호 연합뉴스 부국장은 같은 연

합뉴스 부장인 김은주 자문위원과 같은 회사에 있습니다.

장관님, 자문위원회는 의견을 묻기 위해서 구성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실행위원이나 집행위원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자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비난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투리라는 작품은 2004년 9월 파리에 가서 공연했던 작품이고 국립극단의 귀족놀이도 2004년에 공연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공연해서 되겠습니까?

또 전무후무라는 행사를 보면 처음에는 그 내용이 명무 공연이라더니 실제 내용을 보니 전혀 다른 내용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 하나에 1억 1000만 원이나 지원합니까?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자료요청 과정에서 국제교류과장님이 전화로 하는 얘기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이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몇십 억이 적은 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한불 수교 120주년 관련 작품 구성과 계획은 작년에 진행이 되어서 불란서 측과 협의를 마쳐서 이미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것은 아마 자문위원들만의 결정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 또 불란서 측에도 100주년 행사를 위한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이 자신의 작품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변에서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데……’ 위원님께 이런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민간경상보조의 문제점을 검토하시고 향후 대책을 일주일 이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못했는데 한영상호 방문의 해 지원에 있어서도 의혹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낸 질의서에 누가 행사를 결정했느냐 하니까 정동채 당시 장관, 당시 차관,

당시 국장, 당시 과장,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조배숙 강혜숙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강혜숙 위원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장관님, 지난 6월 14일 문광부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신임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 생체협이 추천한 인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병국 위원 이 공문내용을 보면 이런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선출된 회장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압박성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생체협이 회장 선출 관련 법무법인 충정에 질의한 결과 ‘회장 선임을 위한 추천대상이 된 자의 신분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해당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각종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점만을 이유로 회장 후보의 정치적 중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후보의 경력사항이라든지 향후 예상 업무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상 국회의원이 능력과 자질 및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귀 협의회는 그 국회의원을 새로운 회장 후보로 추천해도 무방하고 이러한 추천행위가 회장의 응모 및 임용 자격 요건인 정치적 중립성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 보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병국 위원 두 번째의 문제점은 체육 관련 단체의 현역 정치인 현황을 보더라도 김정길 대한체육회 회장은 현재에도 여당 당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장항숙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맡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병국 위원 전 회장인 엄삼탁 씨는 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고문 등 특정 정당 고위 당직을 유지하면서도 생체협 회장과 한국씨름연맹총재를 맡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병국 위원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문광부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왔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문광부 체육국장은 6월 20일 생체협을 방문하여 대의원총회 부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생체협 박철빈 부회장, 박조일 사무총장 등에 요청한 사실이 있고, 두 번째 문광부 생활체육과 직원들은 6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배종신 전 문광부 차관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세 번째 문광부 차관은 지난 6월 8일 이강두 국회의원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후보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하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생체협의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별표 1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은 포괄적 자격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필수요건인 정관 제17조에 정한 임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광부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생체협 회장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과 서류심사 평가표에 '정치적 중립성 여부 및 의지와 태도'라고 하는 평가 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심사 단계에서 평가할 하나의 항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회장자격 제한을 가하는 문화관광부의 조치는 명백히 잘못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주장하는 중립성 문제는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평가 항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체협 관계자의 답변과 지난 6월 15일 전국생활체육협의회가 문광부의 부당한 간섭에 항의하며 발표한 성명서, 그리고 6월 16일 전국 대학 체육교수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더라도 문광부의 주장은 압력과 간섭을 호도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역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 관련 단체 현황을 보면 국민생활체육협회의 이강두 한나라당 전국게이트볼연합회 회장, 장영달 열린우리당 전국배구연합회 회장, 열린우리당 양승조 전국궁도연합회 회장, 열린우리당 문학진 전국택견연합회 회장, 한나라당 홍문표 전국생활체육조연합회 회장, 한나라당 황우여 전국검도연합회 회장, 열린우리당 김현미 전국수영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및 프로 연맹을 볼 것 같으면 열린우리당 이종걸 대한농구협회 회장, 무소속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열린우리당 김혁규 한국배구연맹 총재,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열린우리당 장영달 대한배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산하단체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이 현역 정치인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오래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국체협 회장직에 출마를 했는데 어떤 논리로 이렇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이지만 사업비 182억 원의 대부분을……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예산 지원하는 것 다 알고 있고, 산하단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공공성이 매우 강한 공공기관인데요, 자체적으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없지만……

○정병국 위원 장관님, 제가 지금 그것을 조목 조목 항목을 전부 다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가 이것을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당적 보유가……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장관님 식의 답변을 듣다 보면 제게 주어진 시간을 다 써서 다른 것을 질의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병국 위원 제가 문제 지정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관여하는 것이 정치적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 그 답변을 주세요.

다음으로 포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신문법시행령 제3조는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 신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뉴스 배치를 자의적으로 하여서 특정 논조의 기사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글썽요……

○정병국 위원 잘 모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것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편집권 남용인지는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정병국 위원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원래 기사대로 게재를 하는 경우가 24.2%에 불과하고, 부분 수정을 해서 게재를 하는 것이 64.5%, 전면 수정을 하는 것도 11.3%에나 이릅니다. 또 네이버를 보면 그대로 게재를 하는 것은 7.1%에 불과하고 부분 수정이 78.5%, 전면 수정이 14.5%에 이릅니다. 다음을 보면 그대로 기사를 실는 경우는 16.6%, 부분 수정이 72.8%, 전면 수정이 10.6%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볼 때 기사 제목의 편집을 금지하고 제공받은 시간이나 언론사별 지면 배치에 따라서 기사를 올리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편집권 남용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포털 간에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하고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제화를 해 나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2004년 6월에 ‘창의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관광부 정책비전을 자료집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강국 201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김명곤 장관께서 오셔서 얼마 전에 ‘문화강국 2010’ 말고 ‘2020 미래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장관의 임기를 보면 보통 1년 남짓 이렇게 있다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비슷비슷한, 이름만 바꾸는 이런 식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문화 전략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장관께서 내놓으신 ‘2020 미래전략’이 앞에서 얘기했던 ‘창의한국’ 또는 ‘문화강국 2010’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창의한국’은 대충 2010년도까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KOREA 2010’은 주로 문화산업과 관광·레저 산업 분야에 대한 문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의한국’과 ‘C-KOREA 2010’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계승해서 보완을 하자는 취지로 미래전략을 제시하자는 것이었고요, 2010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020을 내다보는 장기 비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자는 것이지, 그전에 마련했던 전략보고서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창의한국’과 지금 말씀하신 ‘문화강국 2010’을 계승한 정책이 무엇이고 그것을 수정했거나 또는 보완을 한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자문단이 이제 막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그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행되는 대로 그것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되는데로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문광위는 스물세 분이나 되시고요,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령 있게, 가끔 적으면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장관님, 한미 FTA의 추진이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모르지만 충분한 준비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준비와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한 한미 FTA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한번 장관님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준비를 해 왔는지…… 누가 그런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도 한미 FTA를 대비해서 추진대책반이 이미 구성이 되어서……

○**김재윤 위원** 추진대책반이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작년도부터 내부적으로……

○**김재윤 위원** 장관님, 한미 FTA를 추진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국제적 협약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가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생각할 때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FTA의 추진 주체인 재정부나 외교부 내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말씀한 내용에 따

르면……

○**김재윤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님의 대답이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교통상부하고 재정경제부만 중심이 되어서 한 겁니다. 그것은 준비가 아니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한미 FTA의 문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추진대책반이 구성이 되어서 정책홍보실장이 단장이 되고, 서비스 분야와 홍보 분야, 그리고 저작권 분야 세 분야로 나뉘어서 각 분야별로 실·국장, 과장, 전문가들과 함께 아주 면밀하게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저작권 분야에 대해서 협상의 쟁점들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을 미국 측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미국 측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시적 저장의 배타적 복제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저작권 보호기간은 몇 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70년이니까 20년을 추가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럴 경우에, 세계은행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보호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가장 손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으로 지목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로서는 지금 50년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기준을 계속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출판업계라든가 저작권 업계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저희가 서비스 관련 분야, 저작권 분야 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사안별로 저희들의 대책, 1단계 대책, 2단계 대책 그리고 관련 업계들이라든가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윤 위원** 일시적 저장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다음에 이외에도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근통제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 보호장치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될 경우에 문화콘텐츠 시장이 미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대응책들을 마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 즉 권리주장자가 직접 OSP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게 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네티즌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큰데요, 정부의 인권 보호에도 배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분야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미 FTA에서 협상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자료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미국 측에서 제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방송·광고 분야에 대한 쟁점들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것도 쟁점 사안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화 분야에 대한 한미 FTA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준비와 대응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관광부라도 제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협상에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저는 앙드레 말로의 말 가운데 ‘국가는 예술을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에 관련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한 팔 거리

정책’을 계속적으로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정책적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 아르코 아트페어 파문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직위원회가 후임 커미셔너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김선정이라는 전 커미셔너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산의 정산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예술가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러한 입장을 잘 정리해서 차기 커미셔너께서는 그러한 일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선정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오늘 중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재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문화관광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술가들에게 너무 간섭하는 데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병국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마는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에서 제8조 응모자의 요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를 국체협회장으로 추천하는 요건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 여부 및 의지와 태도 이것을 세부심사기준으로 마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이 정관은 국체협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정관이었고 그 의도는 생활체육이라는 협의회를 만든 순수함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해서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국민생활체육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정관입니다.

○김재윤 위원 심사기준을 그렇게 마련했으면, 그것을 국체협이 마련했는데 국체협이 그 심사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러한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국체협이 전국적인 조직이 되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이러한 조직이 정치적으로 함께 연결이 된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국체협과 대한체육회의 통합 그리고 KOC 분리 이러한 체육계 현안 문제들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전에 열린우리당 간사셨던 우상호 위원님 출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자기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님, 간단하게 앞으로의 다짐이나 각오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우리 문광위는 지난 2년간 여야 구분 없이 정말 대한민국의 문화산업 또 관광, 문화재,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해 온 기억이 매우 보람이 있어서 다시 신청을 해서 문광위 활동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분들 또 좋은 위원장님 다시 모시고 2년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 한나라당 박찬숙입니다.

국체협 회장 문제가 그런데, 문화연대가 밝힌 체육회 낙하산 인사, 정치권 주요인사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무엇이 다른가?

대한체육회 김정길 회장 아시지요? 전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입니다. 마사회 이우재 회장 전 국회의원, 마사회 김도훈 부회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경남 선대위 수석본부장, 국민체육진흥공단 박재호 이사장 대통령인수위 전문위원, 청와대 정부2비서관,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영득 상임감사 열린우리당 국민생활체육특별위원장, 체육분과위원, 대한농구협회 이종걸 회장 현 국회의원, 대한배구협회 장영달 회장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사이클연맹 임인배 회장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한태권도협회 김정길 회장 전 국회의원, 핸드볼협회 김한길 회장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국여자농구연맹 김원길 회장 전 국회의원, 한국배구연맹 김혁규 회장 현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한국농구연맹 김영수 회장 전 국회의원, 문화관광부장관 이렇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선거 결과가 만약에 이강두 의원으로 나올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위원님께서 예로 드신 다른 단체들에는 그전의 관행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정관 운영규정이……

○**박찬숙 위원** 마사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하고 정치적 중립성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특히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체육단체, 다른 단체들에게도……

○**박찬숙 위원** 그 원칙대로라면 다른 회장님들도 다 바뀌야 되지 않겠습니까? KBO총재 할 때는 잘 하던 회장을 바꾸고 정치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작년 연말에 문제가 됐었는데 왜 갑자기 생체협 회장을 가지고 이러시는지,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거 결과가, 복수 추천됐는데 만약에 이강두 의원으로 회장이 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원칙으로 정한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된다는 저희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지만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숙 위원** 장관님, 이중적 잣대로 들이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세운 것이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11명의 위원 중에 7명, 88명의 소위원회 위원 중 32명이 무려 51억 4300만 원의 지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출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또 채점도 한 사람이 한 결과입니다. 누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의위원 뱅크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빨강게 되신 분들이 다 출제도 하고 심의하고 돈 타가신 분들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사와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과 운영에 일임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문화관광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찬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도록 해 보고요.

○박찬숙 위원 말하자면 이쪽에 특정 성향의 소수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2006년도 공모 그리고 비공모 지원 대상자 중에 비상임위원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들과 연관된 사업들의 기금 수혜 실태를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누구든지 다운로드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상의하시기는 하되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박찬숙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쿼터 얘기입니다. 스크린쿼터를 73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미리 발표해 가지고, 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을 버리면서까지 갑자기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 영화의 월별 점유율이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점유율이 1월 말에 비해서 무려 45%가 줄어든 32%에 불과합니다. 반면 외국 영화의 월별 점유율이 1월에 22.2%였는데 5월 말 현재 68%로 세 배나 쾜쾜 뛰었습니다. 영화인들이 지금 밤잠을 자지 않고 계속 시위를 벌이는 것을 장관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장관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질의드렸는

데, 만약에 FTA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73일이 다시 146일로 환원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것에 대해서는 FTA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박찬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결렬이 된다면……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찬숙 위원 아니, FTA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73일이라고 먼저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이 결렬되면 다시 146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런 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정책을 정하는 것은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찬숙 위원 장관께서 예술인으로 계실 때하고 장관으로 가신 다음에 답변이 너무도 달라져서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결렬되면 146일로 당연히 회복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부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73일이라고 먼저 선포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것도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의 오락실 문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아르코아트페어 주변국 문제입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까 어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광부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 국립중앙극장 프로그램의 하나인 ‘코리아 판타지’라는 대규모 공연을 전체 예산의 5분의 1을 쓰면서 넣으라고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장관께서 6년간이나 국립중앙극장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글썄요, 저는 이것이 저하고 연결된 것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국립극장의 ‘코리아 판타지’는 해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박찬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신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제가 듣기로는 스페인대사관 측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대사관 측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제 미술사이트인 아트넷의 6월 13일자 톱뉴스로 ‘아르코 커미셔너가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퇴하다’는 제목에 ‘코리아 판타지는 신임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댓글을 다시든지 항의하시기 바라고, 주스페인대사관에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코리아 판타지 공연을 선정한 것이지 스페인대사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그쪽에서 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어쨌든 코리아 판타지하고 문광부장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질의를 정리해 주시지요,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하여튼 주스페인한국대사관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해와서 코리아 판타지 공연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문광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공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문광부의 답변이 거짓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민주당의 손봉숙입니다.

장관님은 사행성 온라인게임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지난 3, 4개월 동안 3000개 내지 4000개가 늘어나서 성업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손봉숙 위원 아마 사행성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문광부가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 모니터링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44개 사이트

중에서 3개는 이미 서버 점검 중이고, 1개는 인터넷 도메인으로 자동 이동되었고, 1개는 음란물 사이트로 이동이 되었고, 8개는 사이트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단속하면 한두 달 정도 돈 벌어서 치고 빠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계속해서 단속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단속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사실 이 PC방에서 이루어지는……

○손봉숙 위원 제가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단속하신 분 말씀이 한 번 단속하면 20여 명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다 동원해도 단속이 힘들 것 같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단속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광부가 개인 문화의 건전화와 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손봉숙 위원 그 상품권이 저는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5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단 9개월 동안에 경품권이 몇 장이나 발매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

○손봉숙 위원 45억 1100만 매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조 5500억입니다. 게임용 경품상품권을 22조 발행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존경하는 손봉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PC방의 온라인게임 문제하고……

○손봉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 대답을…… 예스나 노우로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상품권하고 PC방 온라인게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손봉숙 위원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경품용 상품권이 환전용 딱지로 이용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것은 PC방이 아니고 아케이드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입니다.

○**손봉숙 위원** 경품용 상품권을 문광부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게임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면 관련법규에 위반이지만 게임장 밖에서 환전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 괜찮다는 것이 바로 사행성 게임업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상품권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 각 게임물에 내용정보에 대한 표시장치 칩을 넣는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손봉숙 위원** 그다음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2조에 달하는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 수수료가 117억 8831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손봉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국회에 보고하지 않지요? 2005년 결산보고에도 2006년 예산안에도 117억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게임산업개발원에서 회계처리상 국고 외 수입으로 계상을……

○**손봉숙 위원** 국고 외 수입이라는 것이, 문화관광부가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경품용 상품권을 발매하고 얻은 수익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을 민간자율기금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이 117억 원은 누가 어떻게 씁니까? 일체의 보고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아직까지 수수료를 적립만 하고 있지 쓰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손봉숙 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립했으면 적립한 대로 결산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2005년에는……

○**손봉숙 위원** 2005년에 없습니다. 2005년 결산에 117억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품용 상품권 지정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이 수수료 수익금으로 조성된 게임문화진흥기금의 공개, 의혹이 제기되는 회계처리 부분, 국회 보고 누락사건, 비공식적인 회계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알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주요 온라인게임 등급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행성 문제와도 연결되고 청소년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12, 13세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온라인게임 20개 중에서 10개가 12세 이상 등급의 폭력적인 게임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5개가 도검류 이용하거나 총기류를 사용하는 폭력적인 게임물이었습니다. 새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등급분류를 2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2등급으로 분류된 것과 함께 보완대책으로 12세나 15세 이용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지금……

○**손봉숙 위원** 새로운 등급이 있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손봉숙 위원**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2개 게임 중에서 등급표시가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명확인 가능한 것이 단 한 건밖에 없었고 14세 가입동의를 가진 곳이 4건밖에 없었고요. 결제한도를 가진 것이 5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다 결제한도도 없고, 등급표시도 없고, 실명확인 가입절차도 없고, 뭐가 있느냐? 12개 게임 전체가 이벤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곳이 12개 중에서 10개였습니다. 이것을 등급표시를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하지 않는 데 그것을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큰일났습니다. 무슨 시간을 8분을 줍니까?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 이외의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OBACO의 독점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편승한 방송광고 대행 피(fee)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손봉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

하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에서 문광부에 수수료 제도를 반드시 올해 안으로 채택하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손봉숙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국무조정실은 문광부가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광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이라는 기한까지 주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쪽에서는 시장원리 도입을 위해서……

○손봉숙 위원 시장원리 도입이면 장관님, 그러면 KOBACO 하나만 있으면 안 되지요. 복수미디어랩이 도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것이지요. 복수미디어랩에 관련되어서 정병국 위원하고 저하고 두 사람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 아시지요. 저는 그 법안이 채택된 다음에 피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손봉숙 위원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9명 중에 단 1명인 광고주협회만 빼고 8명이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가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까지 있는데 거기에서도 반대를 하고 문광부도 반대했는데 규제개혁단의 지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TF팀을 통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손봉숙 위원 이것은 반드시 원상태로 고수하시고 복수미디어랩에 대한 열린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말씀하시지요.

○손봉숙 위원 경품용 상품권 지정 계약관련 서류·공문 사본 일체 부탁드립니다. 또 각 발행사별로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금을 받은 통장 또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또 수수료 수익금 사용처, 사용현황, 회계장부 사본과 자료 일체를 요청합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국고사업 파생수익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7월 15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수수료 제도와 관련해서 문

화관광부와 규제개혁단 사이에 오고 간 공문서 사본 일체를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손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제협회장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규정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작년에 저희 열린우리당의 안민석 위원이 이 국제협 회장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상임위원장님의 건의와 또 당시 야당위원들께서도 안민석 위원이 국제협 회장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셔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저희가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본다면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께서 국제협 회장으로 출마하신 것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런 규정도 있고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적어도 법을 지키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규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도 순수한 국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국민생활체육협회의 기본 취지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지켜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위원 이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대한체육회와 국제협의 통합과 관련된 법안을 빨리 처리함으로써 이런 정치적 논란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회가 빨리 진행해야 될 일이고 산하단체장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국회의원들끼리 붙어서 당 대당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 와 계신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예.

○우상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국민적 관심사라…… 이번 월드컵 축구 마지막 경기에서의 심판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끓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나 이쪽에서 혹

시 이 문제에 관한 후속 대책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정식으로 FIFA에 오심에 대한 내용을 제기하겠다는 얘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 오심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정식으로 FIFA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정몽준 회장의 인터뷰내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상호 위원** 위낙 국민적으로 판정에 대한 여러 시비가 있는데 현지에 대한체육회장님과 축구협회장님이 가 계신 만큼 정확하게 후속조치를 취한 후에 국민들에게 보고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 문제를 아까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전임 장관께서는 FTA가 결렬되면 그것은 반드시 원상복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영화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FTA와 연동된 것이 아닌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히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저희들 입장은 FTA가 국가적인 사업이고 시행상 필요하다고 하신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스크린쿼터의 축소 조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지만, FTA가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의 원상복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스크린쿼터 축소 조정과 더불어서 영화 발전 지원대책을 여러 가지로 수립했는데 실제로 영화 발전 지원대책은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해야 할 발전대책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이 작업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일방적으로 문화관광

부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 영화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영화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상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1일에는 농성장을 방문했고, 5월 4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했고, 5월 18일과 6월 23일 2차에 걸쳐서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영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와 영화인들이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쿼터 자체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미 축소 조정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 영화산업 발전대책은 스크린쿼터의 축소 조정과 더불어 맞물려 있는 정책적 대안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경제부처에 있는 분들은 영화인들이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인식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쿼터 축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몰라도 스크린쿼터 축소가 이루어진 마당에는 영화인들이 이 발전대책에 합의해 주느냐 합의해 주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 축소에 따르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차원에서 시급히 국고 지원과 기금 신설 등에 관한 작업들은 책임을 지고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만 일방적으로 축소한 상태에서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지원대책 발표하고 끝내 버렸다는 그러한 박탈감을 만회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장관께서 진두지휘하셔서 후속 대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저희 부에서는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하고 기금 신설 및 재원 조성에 관해서 협의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한국영화발전기금 설치 및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국고 1000억 원을 올해 마련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조속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광부 예산이 2001년도에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2005년도 경우에 지방예산 총 106조 1700억 중에서 약 2조 5240억 원이 문화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조만간 3조 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실제 삶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보다도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이 더욱더 중요한 재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지역 기초단체 거주 주민들의 문화 향유 실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1년 동안 예술행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59.3%고, 3년 내에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주민이 9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3조 원에 가까운 지방문화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방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화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시성 예산이거나 이벤트성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화의 양극화 해소와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게 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기보다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요. 지방정부가 쓰는 3조 원의 예산이 지역주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인즈워드 방한을 계기로 혼혈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 누적 건수는 10명당 1명꼴로 결혼하고 있고 농어촌의 경우는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결혼의 27.3%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쌍 중 한 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의 장벽입니다. 저희가 외국에 가면 무료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립국어원이 펴낸 자료를 보면 19명을 인터뷰했는데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이것은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특히 이렇게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한국 문화에 적응하게 하는 데 장애요인이며 이들의 장애요인은 이분들이 낳은 자녀들, 한국사람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이주 여성의 언어실태 등에 대한 조사연구도 전무합니다. 교재도 없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고 노동시간도 길어서 한국어 교육을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장관께서 이들을 상대로 먼저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주 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근로자 문제라든가 이주 여성 문제 등이 최근에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로서도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대응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초적인 조사에서부터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하나는 이주 여성처럼 결혼을 위해서 온 사람이 있고 노동을 하러 온 분들이 있는데 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네 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리고 그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의 교육문제라든가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국립국어원장님, 미리 나와서 준비 좀 해 주실까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세 후보 도시 된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그 현장인 로잔에 있었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러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우리한테 잘츠부르크가 상당히 힘든 상대라면서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소치도 여전히 힘

든 상대입니다.

○이계진 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미리 예측은 할 수 없는데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잘츠부르크는 기본 조건이 저희보다 좋습니다.

○이계진 위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계진 위원 그런데 제가 강원도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올림픽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해야 하는 올림픽인데 그렇지 않은 감이 업무보고에도 맨 끝에 반 토막으로 들어 있을 뿐인데 그 길이와 비례하지는 않겠지 만 관심이 좀 더 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사실 거기에서 대한체육회장님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님하고 함께 만나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국가적으로 총력전을 기울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계진 위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셨는데 원장님은 병든 사람이 불쌍하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

○이계진 위원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병든 사람이 불쌍하다, 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동의합니다.

○이계진 위원 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동의합니다.

○이계진 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은 불쌍하지 않고 병 : 든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것이, 제가 짓이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장단을 무시해도 좋다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예.

○이계진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먼저 원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죄송하지만 원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이계진 위원 표준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시지요?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비교적 가지는 안 됩니다. 국립국어원의 원장님은 완벽한 표준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못하면 부끄러워서라도 표준어 보급에 더 힘써야 되고, 표준어를 잘 못하는 것을 원장으로서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단을 무시해도 좋다는 경향이 요즘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받아서 표준어법이라는 것이 있고 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그 부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현재 음성자료를 온라인 상에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계진 위원 좋습니다. 89년 새표준어가 규정된 이후에 표준어 보급과 표준발음법을 지키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을 저한테 대면보고해 주시고 문광부 어문과에서도 그 실적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원장이셨던 남기심 원장님의 발언 몇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방언사전을 바탕으로 표준어를 선정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을 계몽해서 바른 말을 쓰도록 하는 국어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국어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표준말은 국어학이 아니라 생활언어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언어에서 드러나는 젊은이의 창의력을 우리말 다듬기에 흡수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표준어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어를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지역어의 어휘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표준어와 표준발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신 통일 기능을 갖고 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준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와 신문을 각각 방언으로 썼다고 합시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언어정책에 대단히 혼선이 있는 말을 국립국어원장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제가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협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한 나라의 국어정책을 펴 나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고 현재 문화의 확산이라고 하는 현 시대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계진 위원 확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병 든 사람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병 든 사람이 왜 불쌍합니까? 병 든 사람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칭찬받아야지……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표준어가 동경 중심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1948년도에 공통어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계진 위원 지금 이것 끝내고 논쟁할까요?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예.

○이계진 위원 시간 충분히 주십시오. 논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저……

○이계진 위원 다시 물어 주십시오. 대답할 테니까…… 시간 얼마든지 준다니까……

○위원장 조배숙 아니, 제가 시간을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계진 위원 여기 대답하러 나왔습니까, 나한테 질의하러 나왔습니까?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그 질의가 위원님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다시 물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잠깐만요, 원장님……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1933년도에 정해진 것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계진 위원 그리고 1986년에 다시 개정되었지요?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예, 그렇지요.

○위원장 조배숙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위원님께서 국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표준어의 정의는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잠깐만요,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러한 답변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주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보고자료 가지고 오실 때 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십시오.

저는 국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폐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아름다운 토속어를 표준어에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역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은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현장 언어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실행을 했던 사람이고, 원장님은 이론 중심의 언어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의 우려를 들어 주셔야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립국어원에서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주장을 펴는 정책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깊은 토론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도박 전용 PC방 문제에 대해서 또 같은 내용을 장황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위원장 조배숙 이계진 위원님에게는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장관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장관님은 현장에 가 보실 기회가 없으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도 일부러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가 보았고……

○이계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담당 국장님께서 분장이라도 하시고 한 24시간 잠입해서 현장을 정말 리얼하게 체험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의 주장을, 지적을 그냥 ‘지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내에 도박과 관련된, 연관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이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다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이계진 위원 이것을 신고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번에 선거를 의식해서 4월 20일에 열었던 당정협의에서도 이것이 아마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격하게……

도박을 자유업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해서, 이것을 규제를 해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지역도시에 가면 거기가 적색지역이 되어서 근접을 못 하게 하는데도 안 된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PC방이 처음에는 이러한 도박성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게임을 위해서 자유업이 되었는데 저희로서도 이제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문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한 기관·단체의 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점심 식사도 하시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새로운 기분으로 회의를 속개해서 문화관광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각 과에서 집행한 문화예술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부문의 결산명세, 그리고 행사별 기관별 정산서 사본을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배숙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광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예, 최구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구식 위원 최구식입니다.

아침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질의가 두 번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많은 분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협에서는 사무총장이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자리를 비웠습니다.

○최구식 위원 아침에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예, 나왔었습니다.

○최구식 위원 왜 무단으로 자리를 비옵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아마 회의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구식 위원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차관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치에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아닙니다.

○최구식 위원 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위원님께 상세하게 사무총장의 거취를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구식 위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대변하는 위치에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 끝나고 생체협 사무총장이 저한테 와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장 선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꼭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쪽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판단을 그렇게 했으면 가서 회의 업무를 보라고, 본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에 그랬습니다만……

○최구식 위원 저도 질의를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쪽 라인에 있는 분 중에 많은 분한

테는 제일 현안이 생체협입니다.

생체협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군사정부 시절에도 체육계를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이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로 답변을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총장이 야당에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오전에 왔다가 무단으로 간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을 다시 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위원장님은 매우 존경합니다마는 사무총장을 가도록 한 데 대해서는, 제게 아무런 말씀 없이 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후에 많은 질의자들이 사무총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오전 중에 생체협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는 사무총장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사무총장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시지 않으셨고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회장을 뽑는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락을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 업무를 다른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 하고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예.

○김재홍 위원 생체협 사무총장 부분은, 우선 원칙적으로 정부 측 참석자 중에서 특별한 업무가 있거나 할 경우에 여기에서 계속 지키고 있을 것이냐, 업무를 보도록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고요. 중요한 인사, 장관 정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나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여기 나와 계신 정부, 또 당 관계자들이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당으로서는 오늘 생체협의 투표 진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투표의 주무당사자가 사무총장인데 저도 뭐, 야당 간사께서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투표의 중요한 실무 책임

자로서는 그 일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사전에 협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정청래 위원님!

○정청래 위원 사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최구식 간사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길래 ‘아, 내가 말할 것을 말하겠구나’ 그랬더니 정반대로 얘기하셔서 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었던 내용은, 오전에 죽 있어 봤는데 3분의 1정도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뒤에 계신 산하 기관장들께 질의한 분이 거의 없어요, 국립국어원장 그분 말고는.

그래서 장소도 비좁고 이렇게 벌서듯이 앉아 있는 것이 17대 국회에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위원들한테 좀 여쭙 보시고, 그분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국력 낭비를 하지 않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그러면 간사들 간에 조금 협의를 해 주시고요.

우선 윤원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윤원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지요.

○윤원호 위원 윤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오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체협 회장 선거가 오늘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장관님, 지금 진행 중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진행하는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회장추천위의 운영규정 제8조에 보면 응모 규정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읽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러면 오늘 만일에 특정 정당의 의원께서 선출되시면, 이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에 정치적 중립성 여부 및 의지와 태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장관께서는 이 규정을 지킬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원칙은 지켜 나가도록……

○윤원호 위원 장관님, 지금 생체협 회원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약 3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생체협에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가입된 회원이 1700만 정도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원호 위원 마을마다 생체협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구기 종목 없는 게 없는데요. 300만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서류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300만 명이고요. 거기에 회원으로서 서류에 등록되지 않은……

○윤원호 위원 그러니까 1700만이나 되는 회원을 가진 생체협 회장이 특정 정당의 의원직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기본적으로 생체협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생활체육을 건전하게 활성화하자는 의도입니다.

○윤원호 위원 장관님,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의 임원의 선출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에 보면요, ‘임원의 취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출된 회장을 장관님께서 승인하신다면 장관님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승인하실 것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제가 재차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원호 위원 정관을 엄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관을 엄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을 엄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엄수하실 자신이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시한 원칙은 지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원호 위원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이나 생체협 임원의 운영규정을 따르셔야 되거든요. 회장 추천위의 운영규정 제8조 그리고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을 엄수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윤원호 위원 정관을 엄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가청렴위원회의 지적을 문화관광부에서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5월 초에 예술행정 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관님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영등위 심의위원회 관련 당사자 배제, 경연 심사위원의 비리 문제, 그리고 건축물 미술장식의 리베이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이 지적 사항을 보면 등급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공정 및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포상 지원 및 비리 발생 또 이런 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서 공신력 저하가 되고 비리 발생이 계속 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등급심의라든가 지원심의라든가 또는 어떤 미술장식제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단체나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계속 지연을 해 오셨거든요. 국가청렴위원회 자료를 장관님께서 다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낱알이 보지는 않았지만……

○**윤원호 위원** 이미 지적이 된 그런 행사에 대해서도 계속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온 자료를 일독을 해 보시는 것이 업무수행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알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다시는 건축물 장식물에 대한 비리 이것은 공공연하게, 1000만 원짜리 장식하고 청구는 3억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보면서, 업무보고 7페이지에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 쪽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 지원 확대방안을 보면 마을 단위 문화사랑방형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노인을 위한 실버문화센터, 농어촌 고령자 생활여건을 고려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이런 사업을 공개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공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신청공고를 어디에다 냅니까? 신청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신문이나 문화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BTL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BTL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도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저는 단 한 번도 아직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사업공모를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알려지고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욱더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윤원호 위원** 광범위하게 알려져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고요.

장관님 취임 후에 첫 외부행사도 부산에서 열리는 축제페스티벌에 참석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윤원호 위원** 그때 장관님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부에 사업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을 요청을 했더니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장의 근거서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1일인가 됐는데요. 지방에서 대한민국 축제라는 축제를 다 모아서 축제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 예산이 60억인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문광부 예산이 다는 아닙니다. 그날 장관님께서도 그 행사에 참석하셔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 파악이 안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오기 전인 작년에 지정이 되고 문광위에서 아마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문광위에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근거자료가 전혀 없었고 제가 문화관광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거든요. 남아 있으면 장관님,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나머지 분야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해당 국장께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예결위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우리 당의 예결위원한테 물어봐도 그것을 의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위원** 앞서서도 한미 FTA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장관님, 한미 FTA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문제라고 보십니까, 선택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바꾸어서 우리 국익의 유·불리에 따라서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것은 FTA 주관부처의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심각하게 국익에 침해가 된다면 그런 결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천영세 위원** 미국과 FTA를 협상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중단한 나라가 대충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39개 국가입니다. 중요한 나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를 둘러싸고 농업, 공산품, 거기에다 개성공단의 제품을 한국의 제품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다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언론도 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문화 전반에 관한 전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미국인데 이 문화산업 부문이 전문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다른 이슈에 묻혀 가지고 거의 언론에서는 부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국민들의 관심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그래서 국내의 일부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저작권분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관련 협상은 통상협상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다, 제외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서적, 음악, 미술, 공연, 캐릭터, 영화, 방송제작물이 이 부분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광부에 관련된 FTA 부문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작권분과 협상인데요.

지난번 문광부가 주최한 1차 협상 끝나고 저작권 분야 공청회가 있었던 것 보고받으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천영세 위원** 이 자리에서 앞의 다른 위원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이것은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짚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투명성 문제, 절차,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지난번 문광부가 주최한 한미 FTA 저작권 분야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들이나 토론자들이 일관되게 주창하고 동의를 얻은 부분이 이번 1차 협상 끝나고 저작권 분야와 관련되어서 통상본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결국 미국·호주 FTA 협상 전례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될 전망이 크다 이렇게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글썽요. 전반적으로……

○**천영세 위원** 통상교섭본부의 1차 협상 결과 브리핑 자료에 의해서도 그것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1차 협상에서는……

○**천영세 위원** 상세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작권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핵심이 지금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인데 50년을 초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70년으로 연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헤밍웨이의 작품이 헤밍웨이가 1961년 사망했으니까 저작권료가 2010년이면 끝나지요? 그런데 이것이 2030년까지 헤밍웨이의 모든 작품들이 20년 연장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비친고죄 적용 확대 등 법집행 강화가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국과 호주의 작년 2005년부터 발효되었던 FTA 협상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 이 단일모델을 특히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제안했고 주장하고 일관되게 밀고 갔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호주처럼 우리나라가 저작권 수입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부분은 미국의 어떤 권익 중심으로, 지금 출판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계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그렇게 갈 공산이 대단히 크데 이것이 났을 경우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미국 쪽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구체적 대응을, 저희들의 입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됐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지요. 호주는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호주와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작권 부문이 거의 100% 수입해야 되는 상태이고 농산물도 수출해야 되고 여타 공산품 이렇게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저작권 분야는 거래의 협상카드로 전적으로 미국의 요구, 주장에 내맡기고 양보한 것이 미국과 호주의 FTA 결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이 그

렇게 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산업계와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주로 한미 FTA에 대한 선대책, 후협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적재산권 분야는 농업이나 다른 투자 분야에 비해서 중요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분야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세 위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천영세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후에 1차적으로 국회상임위에 이 저작권과 관련된 협상내용을 그때그때 보고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은 아주 성실하게 진행과정이라든가……

○천영세 위원 문건으로 위원실에서 요청하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구체적 대응방안을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는 과정은……

○천영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절대로 골프장 시설만으로 관광레저도시가 될 수 없다, 다양한 관광레저 시설 일부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천영세 위원 무주 관광레저도시의 경우 개발면적이 110만 평인데 70만 평이 골프장, 골프대학, 골프빌라로 계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대로 다양한 관광레저 시설의 일부로 골프장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저희와 개발 책임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되는 중입니다.

○천영세 위원 골프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 자료에서 2010년 지역별 골프장 수 전망, 2010년이 되면 이용객 수보다 골프장 수가 훨씬 많은 공급과잉현상, 약 100개 정도의 공급초과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골프장을 다량으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입장으로 골프장을 계속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졌던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로 남발되고 있는 곳이, 골프장 공급과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전남, 전북의 현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무주가 그 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레저도시가 골프장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이 부분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신, 중요한 소신으로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답변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알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계속 문제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하고 FTA 문제를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크린쿼터 핵심대책이 영화발전기금 4000억원 조성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박형준 위원 2000억 원을 극장 입장료에서 5년간 5%씩 떼어내서 재원이 마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극장 측과 일반 관객들이 함께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를 극장 측, 또 영화계 인사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입니다.

○박형준 위원 의논 중인데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를 통해서 2000억 원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극장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관객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영화관과 관객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2000억 원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시간만 지나가고 결국 그러면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아무런 재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텐데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떤 재원 마련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로서는 지금 5%의 부담금을 어떠한 방안으로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위원 그리고 예술영화 전용관이 현재 10개에 불과한데 이것을 100개로 확대한다는 방안이 있는데 실제로 정작 수혜자가 되어야 할 예술영화관 운영자들은 이것이 대단히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영화인들이 막 반발하니까 영접결에 내놓기는 했는데 별로 진행되는 것도 없고 현실성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엄밀히 연구해서 이 부분을 다음 상임위 때 다시 한번 여쭙볼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FTA 협상 관련해서도 역시 저작권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미래를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장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정확하게 전문적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앞으로 협상의 중요한 논의과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온라인상의 각종 저작권, 특히 음원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모든 저작권이 행사되는, 구현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일시적 저장 형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박형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는 일시적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미국의 법률과 판례로 규정하고자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로서는 지금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협상팀하고 문광부 사이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협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로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저희들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박형준 위원 문제는 통상협상을 하고 있는 팀에 이것이 미칠 파장이나 효과 등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어서 협상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결국……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협상팀에 우리 문화관광부의 저작권과장이 팀원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의 입장을 협상팀에 계속적으로, 충분히, 강력하게 반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번 FTA 협상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아킬레스건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양보하기 힘들다고 하면 사실 미국과 FTA 전체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문광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이것을 양보할 수 있는 의제라고 보는지, 다시 말하면 협상용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득실을 정확하게 따지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예민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아직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박형준 위원 예를 들면 정보인권 보호 문제만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되면 우리 개인정보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쪽의 저작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충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든 또는 이론적으로든 또는 현실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든 강력한 논리들을 만들어서 이번 협상에서…… FTA에도 높은 수준의 협상이 있

고 낮은 수준의 협상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이번엔 체결되는 FTA가 낮은 수준의 FTA가 될까 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유 차관님, 지난번 정 장관님 계실 때 ‘창의 한국’ 만들었지요? 그 창의 한국이 언제까지 한국의 문화비전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창의 한국은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지금 창의 한국에서 실행되는 것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잘 만든 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비전을 충분히 구현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202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 2020년 미래전략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비전이나 기존에 만들어 놓은 대안들이 다 책상 위의 비전, 책상 위의 대안으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비전 만들고, 장관 바뀌면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창의 한국을……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창의 한국에서 제시한 여러 사업들은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2007년, 2008년까지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작년 연말에 문화관광부 자체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안을 만들고 2020년까지의 전략을 다음 단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고 제가 와서 개인적으로 따로 저의 어떤 미래의 그런 것을 만들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형준 위원 물론 그 점은 이해되지만 창의 한국에 보면 2020년까지 대한민국 문화비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전략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장기비전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박형준 위원 어쨌든 비전이 책상 속의 비전이 아니라 실행되는 비전을, 또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팔로우업하는 전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문화공간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술관이 서울의 경우에 25개가 있고 1개도 없는 데는 대구, 울산 두 곳이고, 영화관이 없는 군은 전체 군의 95%, 이 통계는 맞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재 위원 그다음에 지방에 보면 지방문화원이 있고, 문예예술회관이 있고, 문화의집 등이 있는데 문예회관은 전국적으로 약 140개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에 가면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군이 많이 있고 실제로 문예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텅텅 비어 있거나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 문화공간에 대해서 DB화를 해 놓았다거나 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문예예술회관은 1년 내내 행사하는 기간 며칠 빼놓고는 실제로 영화를 보여 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을 때 추석이나 설날에 즈음해서 두세 번밖에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지요.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인 중에 100만 원 이하의 예술인이 전체의 68.8%고 연극인의 경우 한 달에 35만 원 버는 사람이 상당수가 존재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자와, 이용자와 놓고 있는 공간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때만이 우리가 일반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DB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운영이 체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두 번째로 우리 문광부 예산은 연간 약 2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일반회계가 1조 3000억, 기금이 9200억 정도 쓰여지

는 것 맞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재 위원 그런데 관광을 중심으로 보면, 중국이 연간 1100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연간 중국인 관광객 중에 한국에는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위원장, 김재홍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60만 명입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으로 보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이 매우 중요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관광레저도시를 한 다든지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동남아 골프여행을 하는데 관광공사 스스로가 제주도처럼 해외에도 골프장을 충분히 가지고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 나가려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순 조성액이 약 9016억 원이고 총 조성액이 1조 1000억인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이 통로를 더 가지고 순수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기금이 법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위원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이광재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순 조성액이 6341억 원이고, 총 조성액이 3조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재 위원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법률이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어떤 조항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한미 FTA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가구당 소득 증가를 연간 36.5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내의 제품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내에 존재하는 타 국가의 제품과 경쟁하는 것이 한미 FTA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재 위원 그리고 교육과 의료시장은 개방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미 FTA는 국익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협정이 발효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재 위원 결국 국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재 위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투명성을 높이고 이익단체와 대화와 토론을 해서 이해관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문광위 자체 내에서는 해당 분야인 지적 재산권 문제나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대토론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이 1차 협상하고 나서 공청회를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는 그러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리고 조만간 국회 내에도 FTA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모두가 참여해서, 그리고 문광위원회도 여기 참여해서 우리 국회 스스로가 이 절차와 내용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FTA는 플러스 계층이 있고 마이너스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시트를 놓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언제 완공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정확한 것은 도서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권경상 국립디지털도서관은 2008년 말에 완공되어서 2009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광재 위원 서비스 접속은 어떻게 합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권경상 예산은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접속은 완공이 되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이용료는 어떻게 책정하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권경상**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저희가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운영 준비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미국의 고어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결국은 최초의 수혜 대상자를 학교에 있는 학생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나 선진국이 아니냐는 시골의 마을에 도서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판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IT 강국을 예견한다면 적어도 이 IT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저 시골구석에 있는 조그만 벽지 학교까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즘 문제에서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유통원 공동배달제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예산이 약 1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억 원을 가지고 실제로 이 유통원이 본연의 법률적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광재 위원**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3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이번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재 위원** 마지막으로, 전국에 1158개의 축제가 있고 여기에 약 1300억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재 위원** 그런데 시골 축제가 실제로 문광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많은 기초단체가 선심성 축제를 해서 결국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축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수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원을 하고

문제가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소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생생한 축제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시켜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나라의 문화정책의 책임자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張倫碩 委員**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張倫碩 委員** 헌법의 지도원리 중에 중요한 하나가 문화국가의 원리라고 교과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문화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나라의 가치관과 정신적 체계가 다른 전체 사회적 시스템과 잘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문화관광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의 문화관·가치관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다고 봅니다.

○**張倫碩 委員**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문화와의 관계에서 국가는 문화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문화를 수립하고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 세계적 문화정책관 아닙니까?

방금 문화부장관께서는 나라의 문화정책 책임자로서 문화관을 국가가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의 업무 속에는 문화의 정책적 입장에 따르는 가치관을 함께, 철학을 함께 반영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생

각을 하고요……

○張倫碩 委員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문화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20세기가 되어서 문화가 경제에 종속이 되거나 문화적 불평등이 생기거나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있어서의 문화종속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 그것을 시정한다고 할까 그런 점에서 국가의 문화 기능이 필요하다, 문화에 대한 종래의 자유방임정책이 초래했던 현대적인 모순과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하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의 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크린쿼터제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시행이 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런데 지금 문광부하고 영화계하고 간의 대화나 논의가 거의 없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취임한 후로 5월 1일에 스크린쿼터대책위원회 농성하는 현장에 가서 대화를 했고요, 그 이후로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또 토론회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張倫碩 委員 지금 자료를 보면 5월 4일날 영화인 간담회 한 번, 5월 18일, 그리고 6월 23일, 며칠 전에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했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 두 차례의 토론회를 한 것이 고작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계하고 정부, 문광부하고 접점이 없는 대치 상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장관이 보다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취임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화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그러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도 마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런데 스크린쿼터가 축소됨으로써 영화업계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제작 편수도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멕시코가 스크린쿼터 축소 후에 영화산업이 급격하게 몰락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결국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문제의 핵심은 배급 문제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張倫碩 委員 그런데 문광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주로 제작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영화계의 배급과 유통, 또 해외 진출 문제, 투자 활성화 문제 등등 다각적인 영화계의 현안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화발전대책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에만 치우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張倫碩 委員 글썄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이 상당히 겹돌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중의 하나로는 영화발전기금을 극장 입장료의 5%를 부과해서 2000억을 조성한다는 방침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극장 업체나 제작자, 배급업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지금 영화계가 대치하는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것도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극장업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극장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문제라든가 이동통신사 할인카드제 개선 문제라든가 등등……

그리고 저희로서는 극장 측이나 영화 관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는 유네스코의 국제문화다양성협약에서도 인정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보다 이를 적극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미 시행령에 반영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張倫碩 委員 그러면 미국과는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는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다만 스크린쿼터제도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張倫碩 委員 스크린쿼터 문제는 영화계가 지금 전적으로 대화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관도 영화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다 긴밀하게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서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중간 순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석하신 위원님들 순서로 짜다 보니까, 이 다음에는 이광철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재웅 위원님 그리고 노웅래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오셨구먼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 위원 장운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FTA 문제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왕 스크린쿼터 축소대책 문제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5월 18일날 토론회 결과 문광부에서 기록한 회의록과 실제 토론회 녹음 테이프와는 상당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 영화계의 요구가 뭐였는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7월 1일부터 스크린쿼터가 73일로 축소되는데요. 법령의 소급 적용이 일반적으로 위헌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철 위원 7월 1일이 안 됐으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스크린쿼터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는 146일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7월 1일 이전까지는

146일로……

○이광철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철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73일이 적용되는 거고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철 위원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46일의 절반이면 73일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73일의 절반인 36.5일이 적용되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광철 위원 그러면 스크린쿼터 총 일수가 올해는 109.5일이 돼야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런데 신문기사에 보면, 문화관광부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영화진흥법시행령 결정에 따라서 2006년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73일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아마 기사가 사실과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광철 위원 다릅니까? 이 유권해석을 영진위에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짓이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전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광철 위원 문화산업국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예, 저희는……

○이광철 위원 전달한 것 없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예.

○이광철 위원 영진위 사무국장님 계시지요, 전달받은 사실 없습니까?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김혜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광철 위원 비공식적으로는 전달받았습니까?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김혜준 그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검토가, 1안과 2안을 동시에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문광부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권해석을……

○이광철 위원 내렸지요?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김혜준 예, 내린 것으로……

○이광철 위원 무슨 말이에요, 73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김혜준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아닙니다.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김혜준 최종적으로는 109.5일이 금년도의 쿼터 일수라고……

○이광철 위원 그렇게 내렸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안내 공문을 극장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발송을 해서 혼선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이광철 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극장협회에서는 전부 다 73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공문을 지금 발송했습니다.

○이광철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확실하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만에 하나, 그런데 지금 비공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것이 아마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내리기 전에 일부 검토했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광철 위원 검토했다는 얘기를 극장업계에 얘기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국영화 146일이라고 극장에서 지켜야 할 일수는 상반기에 나누어서 지키고 하반기에 나누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연간 146일만 지키면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령 적용은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에 약간의……

○이광철 위원 그래서 올해 의무상영일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극장 측에, 109.5일로 분명히 통보했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예.

○이광철 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극장업계에서는 여전히 올해 2006년도를 73일로 얘기하고 있고 문광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지금 보면 정동채 장관 때 소위 후속대책으로 4000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박형준 위원과 장윤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올해 1000억 지원하게 되지요, 내년 2007년부터의 4000억 중에?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2007년, 2008년에 1000억씩 2000억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문광부에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부 다 1000억에 포함되어 있고, 기히 했던 사업까지도, 심지어 영진위나 영상자료원 예산까지 1000억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지금 그 4000억 부분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영화계 토론을 통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철 위원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것이 지금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후속대책에 대한 방침이 안 정해졌다는 겁니까?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영화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광철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나오는 1000억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가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영화계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광철 위원 1000억 내에 영진위나 영상자료원 그다음에 기히 있는 영화발전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후속대책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2000억에 대해서 쓰는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기금으로……

○이광철 위원 아,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러면 이 1000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광주문화중심도시 때도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별도의 실령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 문광부 예산의 다른 부분에서 축소되는 과정이 오잖아요. 결국 문화예술계 내에서의 문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각별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 위원 결국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4000억 부분은 별도의 실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결국 문광부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이 되고 문 문 갈등을 일으킨다는 가정에서 2000억은 별도의 실링으로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것을 지켜 내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한 분야의 예산 자체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게 되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리고 2000억에 대한 부분은 영화진흥법개정안을 통해서 해야겠다고 하는데 문 광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되고 2000억에 대한 기금 신설 문제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극장업체나 관객에 대한 부분 도 하지 않았고 지금 의원실에 다니면서 이 부분 에 대해 신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데요.

(김재홍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저희들 추진 일정은 이번 6월 23일날 2차 토론을 끝으로 정부 안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국회하고 상의해서 공 청회를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런 일정 자체를, 제가 FTA도 보면 1차 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그제서야 토론회를 하고 있거든요. 1차 협상의 결과를 갖고 토론회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계 일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어 요. 항상 모든 일은 앞에 가고 있고 의사수렴 과 정이나 관철하기 위한 과정들은 아주 늦게 처리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기금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연동된 문제가 영화사를 하느냐의 문제입니 다. 이통사 카드할인 문제, 이 부분은 작년 6월 국회에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 뒤에 문광 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만 만치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극장계의 심각한 관객 감소와 함께 극장계의 경영에 어려움이 오고 있 는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 문제가 작년 6월 국회에서 지적됐는데.

그런데 여기에다 기금 문제까지 간다면 그것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극장의 부담과 관객 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발전기

금은 문예진흥기금 6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양된 문제거든요. 제때제때 처리됐더라면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지 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강제할 수는 없었지만 중간에 저희가 극장업자도 만나고 나름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부울 문제와 함께 이 문제는 문 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소위 스크린쿼터의 축소 계획안으로서, 대책안으로서 중요하게 제기됐던 문제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부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일정한 움직임이 있지요? 이 문제는 실질 적으로 극장주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 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이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장관님, 아르코 미술제 알고 계 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도 알고 계 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김선정 씨라는 커미셔 너와 사무국 직원들이 사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하 고……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재웅 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 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정확하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는 제가 정확한 보고 를 못 받았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 주무 담당 전결자가 예술정책 국장이신가요, 누구십니까?

확실하게 아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양우 정책실장

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재웅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양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이재웅 위원** 그러면 아무나 대답하세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 없네요?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제가 정책실장 시절에 그 업무를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작년 이전서부터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광진 전 미술협회 이사장이 스페인에 가서 아르코 미술……

○**이재웅 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확정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예산은 언제 확보……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작년 말에 아르코에 관한 예산 2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작년 말에 20억을 확보해서 올해 집행하는 돈입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올해 얼마 집행했지요?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올해는 2억 4000 정도……

○**이재웅 위원** 이 사업이 내년 신규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예, 내년 2월……

○**이재웅 위원** 내년 2월에 집행할 사업이지요?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예.

○**이재웅 위원** 예산이 언제부터 확정이 됩니까, 예산은 올해 배정하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예, 죄송합니다. 올해 것……

○**이재웅 위원** 올해 심의해서 내년 예산이지요?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왜 작년 것이라고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한다고 나오셔서 그래요?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20억으로 지금 저희가……

○**이재웅 위원** 다시 들어가세요. 잘 아는 사람

나오세요. 모르면서 대답한다고 나와서 그렇게 잘난 척해요? 잘 아는 사람 나오세요.

2억 7000만 원 집행했지요?

○**문화관광부예술품예술정책과장 이형호** 2억 4000에서 1억 2000 교부를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아니, 올 6월 말까지 2억 7000만 원 지원 안 했어요?

○**문화관광부예술품예술정책과장 이형호** 1억 2000 교부를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참, 이렇게 엉터리들로 하고 있어 정말. 나라 돈을 무슨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누가 압력 넣으면 이 사업도 그냥 아무렇게나,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마음대로, 다른 데 예산 쓰던 것, 남는 것 그냥 집어다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회계 규정 지키라고 돈 준 데에는 압력 넣고 압력 넣으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은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고 다 탈퇴해 버리고, 왜 이래요!

이것이 지금 올해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잖아요. 신규사업이지요?

○**문화관광부예술품예술정책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왜 맘대로 돈을 써요?

○**문화관광부예술품예술정책과장 이형호**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직위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웅 위원** 필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관광부예술품예술정책과장 이형호** 예.

○**이재웅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지요? 언제 이 아르코 미술제가 집행되지요, 내년 2월이지요?

○**문화관광부예술품예술정책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럼 예산 교부 언제 돼요, 예산이 몇 월달에 교부됩니까?

○**문화관광부예술품예술정책과장 이형호** 예산 확정이 되고 나면 보통 올해 말 또는……

○**이재웅 위원** 몇 월달에 이 돈이 교부가 되느냐고요.

○**문화관광부예술품예술정책과장 이형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바로 교부를 해야……

○**이재웅 위원** 그게 몇 월달이냐고요.

○문화관광부예술국예술정책과장 이형호 1월 정도……

○이재웅 위원 1월달에 교부되고 그다음에 집행은 언제 합니까, 2월달에 하지요?

○문화관광부예술국예술정책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한 달 만에 20억 다 쓰겠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부예술국예술정책과장 이형호 그래서 그 이전에……

○이재웅 위원 그 이전에 지금 사업계획서나 제대로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예산으로 올려 놓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서 아직 없는데 예산 올려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문화관광부예술국예술정책과장 이형호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웅 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계획서가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얼버무리고 그래요.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예술국예술정책과장 이형호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야 되는지에 있어서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아니, 예산이 뒷받침 안 된 사업계획서가 뭐 확정된 거예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장관님!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이재웅 위원 장관께서 이 사업을 확정하시는 지 안 하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압력을 넣으면 중간에도 아무렇게나 예산 줘요. 그리고 돈 쥐 놓고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문화예술 기획하는 사람들은 그 간섭받기 싫다고 빠지는 겁니다. 광주 비엔날레도 그랬지요? 그런 식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천 국제영화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 중도 하차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도 그 문제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문제라든가 예산 집행 문제라든가 조직위원장 또는 예술감독, 큐레이터 등

과 일을 할 때 앞으로는 책임과 권한 문제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장관님께서 지금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 저는 장관께서 이 문제를 모르시고 정부가 돈을 이렇게 집행하고 예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이것은 국회의 예산확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는데 예산을 확정해 그 예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관광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돈을 쓰고 있고, 그렇게 돈을 썼으면 여기에 자율권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자기들은 원칙을 안 지키고 문화기획자들에게 원칙을 지켜라, 정부가 원칙도 없는데 어떻게 신뢰를 얻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장관께서 제도화시키거나 최소한의 기본원칙들을 만들어서 다음 국회 일정까지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불법 사행성 도박이 판치는 성인오락실과 관련해 여쭙볼게요.

성인오락실에서 상품권 취급하잖아요? 게임산업개발원에서 수수료라고 해서 뭘 받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노웅래 위원 그것이 법적 근거가 없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것이 정식 수수료라기보다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노웅래 위원 원래 민간인한테 자율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수수료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발행액이 24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유통하는 데 24조니까 다섯 번 유통된다면 100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적게 받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가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부담금을 지우려면, 돈을 거두려면 자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법률에 근거조항이 명백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근거조항 만드셔야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저희도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만드셔야 됩니다. 법적 근거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수수료 확실하게 받으셔야지요. 성인오락실이 발행액만 24조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하고, 불법 영업하고도 세금도 안 낸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더구나 국회에 보고도 없으시고, 심의의결도 안 받고 이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아예 철폐하든가 아니면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합당하게……

○노웅래 위원 성인오락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게임으로 봐야 됩니까, 도박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 지금 도박성 게임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이 운으로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능력이나 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게임이 건전오락게임이나 도박성 게임이나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번에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분류를 하고 기왕에 등급분류를 받은, 통과된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재심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도박성 게임과 일반게임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노웅래 위원 건전한 게임이랑 도박성 게임을 구분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노웅래 위원 지금 게임과 도박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여러 가지 전문적인 판단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행성 게임물 기준은 경품취급기준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데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이나,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 원을 초과하는 게임물이나,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등 이런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노웅래 위원 게임산업개발원에 우리가 서면질의한 바에 의해서도 성인오락실용 게임기는 승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순전히 우연성과 요행이므로 개인의 능력과 기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고 회신을 했거든요. 이 유권해석대로라면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박이지요. 도박인데 이것이 전혀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독버섯처럼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춘과 같은 수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면허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록제지요? 그냥 임의로 할 수 있지요?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PC방은 자유업이고 게임방은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자유업이나 등록이나 이것은 요건만 갖추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노웅래 위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해야 되는가, PC방은 지금 자유업에서 신고 쪽으로 전환하는 법적 제도를 연구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제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성인오락실이나 성인 PC방이 더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이용객의 43%가 어려운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월소득 2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없는 사람 등골을 빼먹는 것인데 이렇다면 이것은 사회적 범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재산 탕진시키고 가정 파탄시키고……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의 법적 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규제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노웅래 위원** 여하튼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의 사회적인 폐해나 부작용으로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 성인 오락실이나 성인 PC방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국회 차원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성인 PC방·오락실의 폐해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소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아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노웅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사행성 게임물 단속에 관한 소위원회를 우리 위원회 내에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 생체협 회장 선출 절차를 보니까 해당 추천위원회에서 심사·추천·선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종복 위원** 해당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체육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각계의 전문가 등 권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서 정해져 있는 임용 자격 요건 그리고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평가·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임용 자격 요건을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포괄적 자격 요건, 필수요건이 있고 세부 심사 기준으로는 4개 심사항목에 12개 심사 세부 기준이 있네요. 여기에 따라서 심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서 문광부에서 제동을 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체협에서 문제가 되니까 법무법인 충정에 문제가 있나 물었더니 법무법인 충정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광부에서도 몇 군데 법무법인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 자문을 구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종복 위원** 그 결과가 나왔으면 보여주세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종복 위원** 저는 문광부가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생체협 선거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관님 6월 현재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30% 정도……

○**정종복 위원** 5월, 서울 기준으로 32%가 나왔습니다.

연초에 쿼터 절반 축소 발표 때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영화계에 자생력이 생겨서 팬츠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 것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종복 위원** 지금 하반기에는 쿼터 보호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영화 시장이 더 취약해질 것 같은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하반기까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복 위원** 더 못할 것 같은데요? 더 취약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전반적인 연중 점유율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정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 극장요금 할인제도 7월 1일부로 폐지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완전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의견대립으로……

○**정종복 위원** 폐지가 된다고 해서 서로 논란이 일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종복 위원** 결국 계산해 보니까 관객은 앞으로 40% 정도 인상된 요금으로 영화를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객 수 감소는 불을 보듯이 뻗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영화 제작사 측은 어떻겠습니까? 더 어려워지겠지요. 더군다나 극장 측은 암묵적으로 이제까지 자기의 이동통신사 부담금을 제작사 측에다가 절반 정도 부담시켜 왔습니다. 또 극장

측은 자기가 부담해야 될 예고편이라든가 간판료, 포스터뿐만 아니라 극장 자체의 카드 할인 비용까지 제작사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러한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있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남용이 아니냐 싶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더니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광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원회에다 의견을 묻고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이렇게 부당한 부울 문제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이 문제 지적한 것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리둥절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아주 자세한……

○정종복 위원 회의록 한번 보시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동채 전 장관이 전체를 10으로 했을 때 한국 영화 제작사 측에 6이 돌아가게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행하겠다고 했고 장관께서도 제가 묻는 그 자리에서 문광부가 부울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깊이 한번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극장 측하고 제작사 측이 그 문제로 중요한……

○정종복 위원 진행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 지난 5월에 극장 측하고 영화 산업합리화추진위원회 측이 간담회를 한번 열었고 또 며칠 전에 또 한번 열었다면서요. 그런데 별다른 진척이 전혀 없다면서요. 양측이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끝났다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시간관계상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향후 5년간 관람료에서 5%를 떼서 200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영화발전기금 만들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극장 측하고

관객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 나왔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 측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정종복 위원 아까 장관께서는 다른 위원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대답하시대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마련하겠다, 왜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법없이 지금 무조건 국회에 나와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만들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쿼터 축소 대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대안으로 2011년 한국영화진흥 기본계획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종복 위원 이 계획안에 4000억 기금, 예산 분배안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실무선에서는 지금 검토를……

○정종복 위원 제가 보니까요.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서 너무 산만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영화시장 취약점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취약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제가 본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 영화 점유율이 급락한 상황이고 또 이동통신사 할인까지 폐지되어서 관객 수는 줄어든 것이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인 출신 장관으로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한국영화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여러 가지로……

○정종복 위원 자꾸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분명히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영화인들이 삽니다.

지금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잘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이라서 매각이 잘 될는지, 제대로 비용이 확보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영화인들은, 남양주를 옮겨서 부산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양주하고 부산하고 같이 병행 운영을 해 줬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간절하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취임하신지 오늘이면 만 석 달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전병헌 위원 석 달 정도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 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지만 일반적인 업무는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위원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장 문화예술인 출신의 장관님으로서 현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중심 문화행정 원년의 해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포부도 밝히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전병헌 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문광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작성된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월 뒤에 제출된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내용을 봤는데 2월에 작성된 업무보고서하고 6월에 작성된 업무보고서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일곱 번째 챕터 하나 늘려서 한 페이지 정도 늘렸습니다. 종교의 건전사회활동 지원 항목 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장에 국민 생활관광 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다섯 줄이 늘었습니다. 한 장 다섯 줄 정도 변화가 있고 다른 것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취임의 일성으로 현장중심 문화행정 원년의 해로 포부를 밝히신 것이 문화관광부 업무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스쳐 지나가고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약 3개월간 내부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역점 추진과제를, 정책과제를 175개 마련을 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의 전반적인 문화관광부 업무를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관광정책의 연속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문화관광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과 중점 이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현장 문화예술인 출신의 장관님께서 오셔서 현장중심 문화행정의 원년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아젠다를 세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현장 확인 작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3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서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반영이 됐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해 두고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헌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한류를 사랑하는 대상국가들과 진정한 상호교류를 하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고요.

지금 한류가 상당히 팽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일종에 전환의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전병헌 위원 그래서 지금 외형으로는 올해 한국 제작 방송프로그램 판매액이 1000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주요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 상당히 급감을 하고 있고 상하이 국제방송영상전본시에서는 7분의 1로 수출액이 줄어버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왜 그렇다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한류의 확산에 대한 경계심리라든가 염한류 이런 현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헌 위원 제가 볼 때 문제는 한류의 수용자인 대상국의 대중들, 상대국의 대중들로부터

거부가 아니라 상대국들의 정책당국자들로부터의 규제와 거부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문화관광정책당국의 당국자들이 좀 더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국들의 정책당국자들과 사전에 미리 협의도 하고 협력관계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더라면 훨씬 더 이러한 거부감이나 혐한류 추세가 완화되거나 저지가 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또 중국과의 문제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고구려 역사를 다룬 MBC의 주몽이 월드컵 기간 중에도 30%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 SBS도 연개소문, KBS도 대조영, MBC도 태왕사신기 등 이렇게 해서 고구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고구려 관련 역사물들이 제작되어 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고증들이 좀 부실해서 혹시라도 중국 성향의 고증물들, 중국 성향의 장치물들이 방영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동북공정에 역이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장관님께서 “74434”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전병헌 위원 “위대한 유산 74434”, 여기까지 힌트를 주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아, 모르시는군요. MBC의 느낌표라는 교양오락 프로인데 74434는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해외에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BC가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떠돌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찾아오자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엄청난 사회적 반향과 국민적 동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재청장은 물론이고 우리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에서 떨어진 부분

들에 대해서 방영을 하고 또 문화운동을 하는 이런 프로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 정책을 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해외문화재의 반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나간 것도 있고 나라로 나간 것도 있어서 굉장히 조사하기도 어렵고, 반환을 받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 관심 있는 여러 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헌 위원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예.

○전병헌 위원 게임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세 가지만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게임문화진흥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마치 이것이 정부가 관여한 준조세 성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사행성 도박 게임을 허가해 주고 준조세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품권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누계해서 21조 6000억 원이 발행되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은 5회 정도라고 계산하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7~8회 정도 돌아간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미니멈 약 140조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일반예산과 거의 맞먹거나 그 이상 가는 규모이고, 이러한 규모의 자금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서, 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민경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하경제로 들어가서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등위가 이것을 등급 심사를 해주는 것이 온 천지를 도박게임물업소의 천지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법규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영등물 게임·아케이드 심의 기준에 보면 사행성이 지나쳐서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 불가나 등급분류 보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나 심사 판단의 결정적인 미스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전병헌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한 사안인데 그 심사 과정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되고 적절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것 나중에 추가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FTA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경남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이렇게 강력한 힘과 권능을 부여하려 한 정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 과거 왕조 시대부터 계속 공무원의 힘을 견제하고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된 셈인지 공무원을 자꾸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요새 우리 공무원들 언론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에 대해서 참으로 큰소리를 탕탕 치고 있습니다. 국회에 와서도 그러고……

이번 생체협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낸 공문들을 제가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6월 12일날 생체협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두 사람의 회장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6월 14일날 문광부는 이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회장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추진해 달라. 승인 요청 대상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

거나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자로 판단될 경우 승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유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6월 19일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정부 마음에 좀 안 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석부회장은 고액의 국세 상습 체납과 조직 운영 미숙으로 품위를 크게 상실했다. 임원으로서 부적합한 처신과 파행 운영의 책임을 물어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문이 이 정도면 그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19일날 생체협 이사회에서 한 이사는 이렇게 울분을 토합니다. ‘참으로 분개한다. 범국민을 대상으로 회장을 공모했다. 절차에 하자가 없다. 지방의 회장직을 보면 90%가 정치인인데 정치인이라서 자격이 없다면 누가 올 수 있겠나? 군사정권 시절에도 체육을 이용은 했지만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도 계셨던 모양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부 대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전임 생체협 회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엄삼탁 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언제 그만두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그만둔 것으로……

○최구식 위원 왜 그만두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체육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체육국장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확실합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틀린 것 같은데요,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체육국장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아닙니다.

○**최구식 위원** 언제 체육국장으로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2월 3일자로 체육국장에 취임했습니다.

○**최구식 위원** 지금 체육국에서 이 문제가 제일 큰 현안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구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전임자 잔여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2008년 2월까지입니다.

○**최구식 위원** 지금 이 공문들은 다 체육국장 전결로 나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체육국이 생체협에 대해서 이런 투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회장선출 규정을 준수하라고 저희가 입장을 통보한 것입니다.

○**최구식 위원** 준수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4월 25일 공문은 그러면 국장께서 보내신 거네요?

4월 25일 공문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저는 몇 개만 읽었습니다마는 벌어진 일들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오만하게 간섭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저희가 4월 25일 날 보낸 공문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단체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은 존중을 하지만 지금 국체협의 정상화 노력을 가능한 조기에 마무리해 달라 이런 요청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최구식 위원**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이 난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연락을 받았습나다.

○**최구식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결과가 대의원 138명이 투표를 해서 찬성 123표로 해서 이강두

후보를 회장 당선자로 선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구식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그 문제는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까? 오늘까지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저희가 더 면밀히 규정도 한번 보고……

○**최구식 위원** 아직까지 면밀히 규정을 안 보셨습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작년 10월 10일입니다.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아직까지 규정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작년 10월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5월 17일날 회장추천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한 이후에 그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작년 이후하고는……

○**최구식 위원** 그러면 백 보 양보해서, 그러면 그때 이후라 하더라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규정을 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현재** 저희가 이미 큰 로펌 두 군데에 법률 자문을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받아 보아야 될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언론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장관께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138명 중에서 123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역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최구식 위원** 이 상황에서 검토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추인에 대한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아주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유진룡 차관님?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예.

○정청래 위원 혹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 담임 선생님이 썼던 기록을 한번 잘 염두에 두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서 잘난 체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기록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평소에도 잘 모르면서 잘난 체를 많이 합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그런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그런 발언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잘못하면 유진룡 차관님께서 잘 모르면서 잘난 체하는 성격이라고 다 알려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쭙어 보았습니다.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예, 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저는 공무원도 국민이고 인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광부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질책할 수 있어도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7월 1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이 아마 영화계에는 곡소리 나는 날일 것 같습니다. 스크린쿼터 문제도 그렇고 아까 정종복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이통사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통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액 자기들이 부담을 하다가 영화쪽에 300원, 그다음에 600원, 900원 이렇게 자꾸 부율을 높여 왔더군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하는 것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극장주들 같은 경우도 이기주의가 없다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영화를 이렇게 할인카드로 봤던 우리 국민들, 그것도 용돈을 쪼개 가면서 영화관에 갔던 이삼십대 영화관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보니까, 작년에 1억 4000만 명 이상이 영화를 봤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4760만 명이 지금까지 이용을 한 것 같은데, 피해를 봅니다. 이것이 중단됐을 때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돈이 952억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이통사나 영화 극장주 만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매우 중대한 대란이 올 것 같습니다. 내일

이라도 당장 조정에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지난 5월 말에 극장업계와 이통사 협의를 주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해 주시고요.

지금 동네 골목골목 가면 동네 사랑방에 손님이 없습니다. 동네에 구락부라든가 사랑방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없고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성인 PC방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머를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렸는지, 열린우리당이냐 참여정부에서 도박장을 개설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그런다, 심지어는 대선자금으로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런 루머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고 그러합니다. 도대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크던 옛날 골목길에는 구슬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했는데 지금의 골목은 돈치기하는 소리, 그래서 가정주부들의 울부짖는 울음소리만이 난무합니다.

아까 우리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 중에서 무엇이 이 부분을 가장 잘 규제를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정청래 위원 사이버머니가 현금으로 교환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것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2002년도 대법원에서 도박장 개장죄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청래 위원 어떤 회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440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답니다. 제 질의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6월 29일날은 현재에서 신문법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이 1차로 나오는 날입니다. 저는 신문법을 대표발의하고 그것을 추진해 왔던 국회의원으로서는 신문사 사주협회, 그냥 신문협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주협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위헌이라고 의견을 내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위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노’ 이렇게 대답

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보통 신문들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이상하다,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다 이런 것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사는 자기들이 무슨 성역 집단도 아니고 금단의 영역도 아닐 텐데 전체 발행 부수가 몇 부냐, 유가 부수가 몇 부냐, 구독료 수입이 얼마나 되냐, 광고료 수입이 얼마나 되냐 이 네 가지 조항도 자료 신고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매우 위협하는 반자본주의적 작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준비하셔서 이 부분이 신문사 사주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신문사가 전락하지 않도록 공적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신문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신문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명 경영 어찌고 이렇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본인들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이율배반이요 이중적 작태입니다.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관광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관광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산업과 달리 세계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키워야 된다 하면서도 실제로 다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업의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되는데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부분적으로 불리한 것은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불리한 점이 많이 있지요? 제가 이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 사장님도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님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셔서 관광산업도 산업의 범주에 들어가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생체협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

는데요. 규정에 없으면 몰라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법을 만들어 낸 국회의원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회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심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 자율적으로 모든 예산을 자체 수입으로 한다면 문광부에서 왜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광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거의……

○정청래 위원 생체협의 몇 %를 지원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한 93%, 거의 전액에 가까운 돈을……

○정청래 위원 그렇지요? 90% 이상, 180 몇 억 중에서 169억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 혈세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단체를 소관 문화관광부에서 감독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규제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차라리 생체협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조배숙 정청래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국체협이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감독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승인 취소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 끝 순서입니다. 여당 간사로서 끝 순서가 됐는데 질의를 안 하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민족경제공동체는 상당 수준으로 진해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단계 사업으로 이제는 민족문화공동체 남북문화적·사회적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는 데 무게가 옮겨 가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박물관 교류가 이루어졌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정청래 위원 북쪽의 국보급 문화재 수십 점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시되고 있는 줄 압니다. 몇 점이 와 있으며 현재까지 관람 인원은 얼마나 다녀갔는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국립박물관장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견무 온 유물은 90건입니다. 실제 유물 점수는 훨씬 많습시다마는 건수로……

○김재홍 위원 현재까지 연 관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견무 제가 관람 인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재홍 위원 기대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홍보를 못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견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월드컵 열기도 그중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제가 2004년도 국정감사 때에 처음 제기했고 국립박물관도 개관 행사로 받아들여서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발의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남북 문화교류의 중요한 사업을 했는데도 홍보가 안 되어서 일반 국민들이 관람을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국민 친화적이고,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견무 잘 알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두번째는 언론법 현재 평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두 개를 언론개혁 입법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입니다. 의원입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신문업계가, 일부 신문사가 현재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 나가야 될 텐데, 공개 변론 때는 저도 가 봤습시다마는 어느 정도, 해도……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바로 그 신문협회가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았다면서 자료를 모아서 현재에 전달했는데 저는 이것은 상당한 압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료 전달은 할 수 있겠지요. 그 자료 내용을 분석·검토했으며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새로운 대안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미디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얼른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백익 문화미디어국장입니다.

신문협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자마자 기자회견이나 언론단체들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자기들과 의견을 달리한다든지 부적절하게 의사전달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덜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이미 평결 방향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달 말로 예정된 평결에 늦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원입법에 대해서 정부가 소홀히 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장 백익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스크린쿼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46일을 73일로 줄여서 이미 시행했지요, 7월 1일부터 시작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극장주들이 지켜야 될 상영 의무 일수는 며칠입니까, 분명히 정해졌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아까 존경하는 이광철 위원님하고 계산한 대로 109일로 저희가 각 극장주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재홍 위원 예, 109일이지요.

영화 관람료 인상이 영화 관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람료를 인상하면 나는 영화를 여가시간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반응 같은 것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공식적인 조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있는데요, 한국영상산업정책연구소 이것 공적 연구소 아닙니까? 이 연구소의 2005년 6월 16일자 연구 결과를 보면 영화 관람료의 인상이 소비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70%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서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여기가 공적인 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홍 위원 사설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김재홍 위원 그런 연구 결과를 저는 수집해서 봤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영화 관람료의 인상이 국민의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민감하다는 말씀입니다.

극장주협회 측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문예진흥기금을 폐지했을 때 그 기금을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관람료로 잡아 버렸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저는 영화진흥기금을 다시 만드는 것이 몇 년 뒤에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관람료 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도 그 문제를 극장주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영화발전기금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국체협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체협은 기획예산처의 공기금 사용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최근에 기관 경고를 받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김재홍 위원 향후 경영개선개혁 제출 등의 제재를 받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김재홍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라든가 혁신 의지가 약하고 방만한 예산운용이라든가……

○김재홍 위원 말하자면 관리경영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CEO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아마 그런 점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홍 위원 이번 회장은 아까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존경하는 최구식 위원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말 낙하산으로 정부에서 내미는 단일 후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낙하산, 낙하산 하나까 그 낙하산을 개혁하기 위해서요. 공모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전문성 있는 관리자, 지도자를 영입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회장 응모자격 요건에도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아까도 누누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문광부가 또 장관 권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뽑혔다고 하지만 그대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시되 만약에 이렇게 자기들 예산의 93% 이상 공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정부정책에, 또 자기들이 정한 지침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방만하고 혼란스럽게 간다면 거기에 공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로서는 국체협의 본래 목적인 건전하고 균형적인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펼칠 생각입니다.

○김재홍 위원 체육정책의 핵심적인 단체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공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 위원장님!

○박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배숙 어떤 분이 손을 먼저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웅 위원 모 위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유진룡 차관님께 잘난척한다고 얘기를 한 것은 유진룡이라는 사람 개인에 대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요? 개인 인격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관직을 수행하는 차관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어떻든 저는 점잖으신 분이 저한테 하신 표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방금 또 점잖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정부 측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업무를 보고하고 그 업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러 나오신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예, 맞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그냥 사안도 아니고 문광부의 현안사항으로, 분명히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업무보고에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내놓은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재웅 위원** 제가 묻는 애기에나 대답을 하세요.

업무보고사항에 네 가지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넣어놨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답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차관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할 때 알았던 얘기라고 하면서 대답한 것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항을 전혀 몰랐지요?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웅 위원** 그리고 대답하는 태도라든지 나가는 태도는, 유진룡 차관은 작년에 실장을 할 때 경솔한 행동 때문에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놓고 또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답을 덜렁덜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장난하러 오는 데입니까?

유진룡 차관, 지금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자신도 없으면서, 여기가 나와서 장난하는 데예요?

○**정청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이재웅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잠깐만요, 이재웅 위원님 신상 발언이신데 너무……

○**이재웅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이재웅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고요.

마무리하십시오.

○**이재웅 위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진지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나와서 대답하는 것이 정확하지도 못하고 이미 엉터리 대답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지한 답변이 아니고 장난스러운 태도라는 것이예요. 차관이라는 사람이 왜 신중치 못해요. 한 나라 정부의, 문화관광부의 차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지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문화관광위원회 전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술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인데 예술국장이 해외 세미나 관계로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도 얼마 전에 인사이동을 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차관께서 나서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웅 위원** 장관님,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장관님께 직접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결 과장이 누구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현안사업이라도 구체적인 사항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따져 묻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전결한 사람의 답변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 못 했지요? 실장 나와서 답변 못 했지요? 차관 덜렁덜렁 나와 가지고 엉터리 답변 했지요? 이것이 무슨 태도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담당 국장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조배숙** 이재웅 위원님, 잠깐만요.

○**이재웅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재웅 위원** 그냥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배숙**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 위원** 유진룡 차관! 그냥 넘어갈까요?

○**위원장 조배숙**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 위원** 내가 여기에서 장난스럽다고 한 발언이 잘못 되었어요?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그렇게 보이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숫자에 대해서 혼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착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이 들어와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려는 순간에 저보고 내려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려온 것일 뿐입니다.

○**이재웅 위원** 사정을 제대로 모르면서 왜 답변대로 덜렁덜렁 나갑니까?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그 과정은 방금 전에……

○**위원장 조배숙** 이재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청래 위원**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실제로 답변을 직접 안 하시는 분은 가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다, 국력 낭비의 현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께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유진룡 차관께서 잘 모르면서 잘난체하는 성격인가 아닌가를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통 호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또 한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유진룡 차관을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격이 내 표현이 거칠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의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소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깨끗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서 잘난체한다, 이것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말을 하게 되면 곧바로 주먹다짐하고 싸우게 됩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그냥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여쭙어 본 것이고,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평소 그런 성격이 아니시라니까 저는 그것으로 일단락시키고 싶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또다시 유진룡 차관에 대해서 장난하나 이런 식의 되물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다음에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숙 위원** 지금 양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열린우리당의 어떤 위원님께서 신문법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지는 날짜가 가까웠는데 신문사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개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광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고 또한 미디어매체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광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위원들이 신문법 위헌소송 관련해서 합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연서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압력을 느꼈겠습니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또 신문사들이 연서해서 위헌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압력을 느꼈겠습니까? 그 비중을, 그 경중을 따진다면 어느 쪽에 헌법재판소가 더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글썄요, 그것은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느꼈을지는 그분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숙 위원**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의 최종해석권자이고 판결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입법기관인 특히 여당 위원들의 합헌의견서에 대해서 아마도 압력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 보통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주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개진한 것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했느냐 하는 그 질의 자체 또한 압력이라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답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배숙**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17대 국회 후반기에 우리 국회는 행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하지만 우리 국회도 나름대로, 지금

가장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서로의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책을 하지만 또 단순한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연사를 높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를 떠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상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오늘 후반기 국회 들어와서 처음 열리는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위원회는 작년에 시민단체가 선정한 최우수 상임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야간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상임위원회 운영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영상으로 실시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을 계승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국민들 보기도 합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병헌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위원장 조배숙 전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병헌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웅래 위원님의 질의에서 게임문화진흥기금이 법률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11일인가요,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해명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장치가 필요없는 것이다, 자율적인 기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것이 해명자료하고 상치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행성 게임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성을 다 지적을 하였고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지난 2005년 11월 18일 관계부처 합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행령이 됐든, 심의기준이 됐든, 새로운 기구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이것이 단속이 되면 아마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도박성 게임장을 열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도 다 우리 국민들이고 소비자들이고 경제인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업종에 뛰어들었다가는 상당히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환기시킬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중요하신 지적이고요.

아까 게임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문화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그 부분이 자율적으로 업계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정에 따른 수수료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러면 해명 보도자료가 틀린 것이네요? 문광부에서 게임산업과 공병윤 씨가 낸 거예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위옥환 업계 스스로 자율 결의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율만 가지고 주장하기에는 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으니까 최구식 위원님 발언을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구식 위원 문을 열어 놓고 닫지 않고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후회의 시작하면서 생체협 사무총장이 무단으로 국회를 떠났기 때문에 출석하라고 여야 간사 합의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께서는 오후에 진행된 생체협회장 선거가 매우 복잡해져서 본인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

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사 간에 접촉해서 총장은 출석을 하고 부총장이나 다른 사람으로 대행하도록 하라, 천만 올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에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쟁겨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 조치에는 인사상의 조치까지 포함한다고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둡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실만한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문화관광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강혜숙 위원, 정병국 위원, 김재운 위원, 손봉숙 위원, 박찬숙 위원, 천영세 위원, 우상호 위원, 이계진 위원, 윤원호 위원, 박형준 위원, 이광철 위원, 이재웅 위원, 노웅래 위원, 정종복 위원, 전병헌 위원, 장윤석 위원, 정청래 위원, 김재홍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한 소속기관장, 산하단체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문화재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배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화재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예.

○이계진 위원 앞서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

고 질의했던 과정에서 있었던, 저와 관계되는 일이지만, 국회의 위상이나 권위, 기능 등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다음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 끝나고 돌아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국립국어원장이 제 앞에 와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국립국어원장을 아나운서를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모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대항을 해서 말은 했지만, 나는 그 분이 경상도 분이어서 표준어를 못 한다는 것을 탓한 것이 아니라 국립국어원장이면 적어도 표준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못하면 부끄러워 해야 되고 표준어 정책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더니 “말은 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또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업무로 물어보고 답변을 하는 과정은 항상 진지해야 되고 표현은 부드러울 수 있지만 내용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립국어원장이라는 사람의 답이 아무리 사적으로,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지만 변함없이 ‘언어는, 말은 통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앉아 있을 만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있었던 대답에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질의하는 것은 개인이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국민이 묻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확하고, 책임을 질 만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배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는 그 뒤에 그 해당 국회의원을 선출한 적게는 10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0~30만의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대표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엄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점부터 우리

가 그러한 진지함을 가지고 국회를,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화재청장님 그리고 유관 기관 단체장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앞으로 운영될, 그리고 또 이 운영에 참여할 모든 유관기관에게 이 부분을 저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엄중하고 진지하게 운영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번에 새로 구성되어 출범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재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자 미래를 열어 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자산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문화유산 보존 관리의 기반 강화,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유산의 국제 위상 제고 등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북관대첩비를 북한에 인도하고, 6월에는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발굴조사를 고려왕궁터인 개성 만월대 지역부터 7월 3일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하는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지속 확산해서 13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1304명의 개인·단체들을 위촉하는 등 국민과 함께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 나가는 한편, 창덕궁 자유관람제 도입과 그동안 공개가 제한되었던 낙선재 후원과 동구릉의 선조대왕 목릉을 추가 개방하여 문화재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의 주요 현안 업무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내 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의 토지이용규제를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4419건) 보호구역 5억 9000만 평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는 일, 그리고 개성역사지구의 문화재 공동 발굴 및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문화재청 전 직원들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재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원 차장입니다.

송인범 정책홍보관리관입니다.

김홍렬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김창준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이춘근 사적명승국장입니다.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이종철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입니다.

소재구 국립고궁박물관장입니다.

이동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문화재청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관으로 하여금 올려 드린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정책홍보관리관 송인범 정책홍보관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주요 현안 업무만 보고토록 하지요?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배숙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앞으로 질의도 남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 업무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정책홍보관리관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 조사·보존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군 남면을 중심으로 해서 2260여 만 평이 대상 도시지역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문화재 분포 지역은 약 365만 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문화재가 한 206개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굴이 필요한 지역은 51만 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청에서는 충남·북 지역에 있는 조사기관 10개 기관을 투입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도 잘 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책입

니다.

저희가 건교부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해서 2008년 12월 말까지 각 개별 토지에 규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소재 여부,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여부, 그리고 영향권 토지역 여부 등을 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한 5억 9000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성역사지구 문화재 공동 발굴 및 세계유산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남북역사학자협의회하고 민족화해협의회 간에 개성 만월대지구 남북공동발굴조사를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7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성 만월대유적 서북 건축군 지역 1만 평을 남북 합동으로 발굴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굴이 끝나면 내년도 2월달에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해외에 소재한 우리나라 문화재는 7만 4459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개국에 산재해 있는데, 해외에 있는 정상적인 경로로 간 문화재는 다르지만 반출 문화재 반환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해외 문화재 파악은 말씀하신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백한 약탈이라고 하는 근거자료를 찾는 것이 저희가 반환받는 데 키가 됩니다. 그중에 일부 반환되어 온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쳤듯이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몇 가지 안건, 문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유출되는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관 차원이든 민 차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중요한 반출 문화재로 외규장각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문민정부 때도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 정부 대책은 외규장각 전담 대사로 장재룡 대사가 임명돼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의 입장은 장재룡 대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런 해외 유출 문화재를 환수하는 전담 조직이 문화재청에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따로 전담 조직으로는 갖고 있지 않고 교류과가 사실상 국제교류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해외 문화재의 약탈 근거를 조사하는 것은 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어쨌든 이러한 전담적인 인력이 있을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외규장각 도서 반환만 하더라도 한때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가 갑자기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자기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외교부하고 저희하고 하는 일에서 크게 전담 기구까지는 느끼지 않았는데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 많아지면, 그리고 반환해야 될 문화재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게 되면 교류과에 전담 팀을 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난 국감 때나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만 동산문화재 실태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산문화재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까지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런데 실태조사가 현장조사가 아니라 문헌이라든가 또 시청이나 시·군·구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

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이번에 달항아리에 이어서 전국에 있는 초상화에 대한 지정조사를 전담 팀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집의 초상화 조사를 나가면 그 집안에서 ‘그와 관계되는 유물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문화재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담 팀이 가니까 동산문화재 신고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제주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1월에 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예, 2006년 1월에 하셨는데, 제주도를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제주도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님과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내년엔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게 현재 아무것도 없고 제주도가 거의 유일한 안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신중하게 준비해 가지고 우선 금년 7월하고 10월에 파견될 심사단의 현지 실사에 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때 저희가 심포지엄도 함께 열 것이고, 특히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검은오름을 비롯한 오름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다고 현재 자신이 있어서 그동안에 사실 준비는 4, 5년 동안 해 왔던 것을 내년도 심사에 안전으로 올린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제주도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있었다가 문화재청이 앞장서니까 지금 보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박찬숙입니다.

청장께서는 제가 신안해저유물전시관이 박물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을 알고 계실 것이고,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박물관 승격을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재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현재 5월 30일에 행자부에 직제개정안을 제출해서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장을 3급으로 승격시키는 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고려시대의 귀중한 유물이 바로 해저유물로 지금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면이 바다이고, 바다 속에 묻힌 귀중한 유물들이 많은데 전시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박물관 승격에 있어서 약속하신 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박찬숙 위원** 또 하나 제주도에서 3000여 년 전의 신석기시대로 추정되는 패총이 발견됐는데 지표조사 때문에 공사가 연기되는 것이 우려돼서 이것을 숨기고 그냥 공사를 강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박찬숙 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바로 중단시키고 조사를 했고, 그다음 제 보고는 아직 못 들었는데……

○**박찬숙 위원** 그러니까 중단을 시킨 것은 일단 거기까지 진행된 것을 막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사전에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취해야 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1년에 발굴하는 것이 1000건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현장이 350군데가 있어서……

○**박찬숙 위원** 아니, 업무가 많다는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니, 그게 아니라 발굴현장에 문화재청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발굴단의 학자적 양심과 지자체에서……

○**박찬숙 위원** 제가 유 청장 앞에서 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귀중한 문화재가 한번 사라지면, 파괴되면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다시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복원 건물이 문화재인가 아닌가 한번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에서 이것을 뉴스로 크게 다뤘는데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벽을 뚫고 에어컨 실외기 배선 연결했습니다. 창덕궁 안의 복원 건물에 실외기 났습니다. 못질 아무렇게나 하고 있습니다. 전선 배선도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궁 안에 있는 건물인데 타일로 화장실, 욕실 다 만들었습니다. 대중음식점 같지 않습니까? 복원했다는 겁니다. 타일 벽면 처리했습니다. LPG 막 놓고 있습니다. 요새 CJ푸드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쪽에 소화전이 있고 바로 반대쪽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재 염려 없다? 이런 것 우리 사무실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사람이 살아야 관리가 잘 된다, 그리고 궁 소장이 사택으로 쓰고 있고 회의실로 쓰고 있고 인부들 이 안에서 다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2004년에 2억 들여서 내부공사를 마쳤는데 공사 당시에 사무실의 기능하고 근무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만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재공사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공사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제를 시행하도록 문화재청 내부규정이 있는데 2억 2000만 원짜리를 그냥 수의계약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답은 조금 있다 하십시오.

수원에 있는 화성행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저장대가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여섯 번 순찰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다음 날 애기도 뭐라 그러냐면 근무일지가 여섯 번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은 1시 40분에 났는데 아침 6시 50분~7시 10분까지 순찰한 것도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고, 불났다는 게 언론에 다 보도된 그다음 날도 화성행궁 내·외곽 순찰, 주차장,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두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게 여러 개인데 답변하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먼저 화성부터 말씀드리

면, 화성 저장대가 불탄 것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는 정말 심심히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저장대 건물이 그동안에 이상하게 불이 많이 나 가지고 현재 있는 저장대 건물은 91년도에 복원한 건물입니다.

○**박찬숙 위원** 지금 청장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낙산사 불났을 때도 청장께서 그것이 원 낙산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복원된 낙산사였다고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듯이 발언해서 그 당시 문제됐던 게 상기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문화재에서 고유문화재와 복원문화재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문화재 보호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상 또는 관념상 옛날부터 50년, 100년, 2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문화재하고 10년 전에 복원된 문화재하고는 저희가 성격을 분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저장대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화성사적관리소가 관리하고, 그 책임은 수원시와 경기도가 갖고 있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사적관리소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덕궁의 경우에도 저희가 거기에 당직실이라든지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10년 전에 복원을 해 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빈 공간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저희가 70억을 들여서 사무실 공간을 지은 것이 아니고 7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아무것으로도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사무실 공간으로 재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사무실 공간으로 재배치했기 때문에 타일을 붙이고 LPG를 들여놓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이래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래서 저희가 당직실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관사로 일부 쓰고 있던 것은 철수하고, 그리고 당직실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창덕궁관리소를 창덕궁 안에 둘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창덕궁이나 경복궁에 새로 복원돼 있는 건물 중에 고유적 가치를 갖고 있어서 복원하는 경우하고 사적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하고는 궁능의 활용에 대한 철학에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박찬숙 위원님하고 저희 청하

고 의견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숙 위원 지금 유 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후자의 개념으로 이것이 복원된 것이다,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처럼 복원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니지요. 문화재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원해 놓고 그것을 지금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

○박찬숙 위원 그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거기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보여 드렸듯이 에어컨, 그리고 전열기구, 여러 가지 샹들리에, 타일, 현대식 양변기 이런 것을 들여놓고 그 안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 건물만 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옆의 귀중한 사적인 창덕궁이 불에 옮겨타지 않는다는 보장 누가 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내병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창덕궁 담에서 이쪽 인정전 권역하고는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지요.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박찬숙 위원 지금 그 답변은 상당히 책임 회피성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문화관광위원회 이 안에서 전열기구에서 불이 나면 이 사무실만 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지금 그 배치도가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소장이 그 안에서 기거하는 곳은 바로 창덕궁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궁은 그렇지 않은데 창덕궁만 왜 관사로 그 소장이 그 안에서 기거해야 되며, 인부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잠자고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실내 식당이 그렇게 대중, 정말 삼류 싸구려 식당처럼 그 안에서 밥을 짓고 이러는 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인 2억 2000만 원짜리 공사를, 1년여에 걸쳐서 4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활용의 도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박찬숙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제가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창덕궁이나 경복궁의 숙직을 한 명뿐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에 창덕궁 소

장이 자기 자신이 항상 거기에서 숙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서 제가 허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관사는 철수하고 당직실로만 사용하고 제한을 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소장 한 사람이 24시간 잠 안 자고 근무한다는 것은 전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차라리 경비인력을, 궁 관리 인원을 늘려서 3교대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좀더 철저하게 문화재 보호 정신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지난 몇 번의 상임위 때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건설 계획이 행복도시 1개,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6개 등 모두 1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3만 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표조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시굴 및 발굴조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만약에 시굴·발굴조사가 결정되면 공사가 지연되고 또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타나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전에 행복도시 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행복도시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이게 열일곱 군데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시기가 2005년~2015년까지 집중되어 있거든요. 실제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다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청 자체 내에 지표조사단을 갖는 것이 더 빠르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발굴조사, 지표조사를 구별해 가지고 37개 발굴단은 발굴조사를 하고 그리고 150개 대학박물관을 비롯한 곳이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지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발굴에 실력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표조

사를 정확하게 해야 발굴조사를 가는데 현재 지표조사비는 평당 몇백 원으로 나오고 발굴은 평당 몇만 원으로 나오니까 발굴 기관들이 지표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것이, 네 군데 지방연구소가 있어서 연구소에 15명의 지표조사단을 갖고 있으면 1년에 한 1700건 떨어지는데 그중에서 국영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실시를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행자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실제로 이런 우려가 북제주군의 사례에서도 현실화됐는데요. 지난 5월 17일날 우도의 천연기념물 438호 ‘홍조단괴’ 인근 주차장 공사에서 신석기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패총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상호 위원** 그런데 도 내에 긴급수습조사를 할 수 있는 발굴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장 공사는 주차장 공사대로 진행을 하고 패총이 드러난 부분만 비닐을 씌우고 모래로 덮어 놔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작은 주차장 공사에서도 이런 일이 드러나는데 대규모 지역개발 과정에서 드러나는, 보니까 대규모 도시 건설 관련해서 지표조사 대상이 행복도시 2260만 평, 혁신도시 1822만 평, 기업도시 3237만 평, 총 7329만 평에 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래서 저희가 발굴 기관……

○**이상호 위원** 실제로 문화재청이 직접 하면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하면 상당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저희들이 할 적에는 3분의 2 정도의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표조사단이든 발굴단이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학술적인 발굴만 하고 있거든요. 분황사라든지 서산 보은사터 등을 하는데 저희가 여간한 경우 아니고서는 발굴을 안 합니다, 이런 구제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차제에 발굴기관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발굴공단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지표조사단을 먼저 하려고 지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별공사의 과정에서 문화재

유적이 발견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사를 지연하면서 발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청계천 복원사업처럼 대규모 국가적 혹은 큰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시한에 쫓겨서 갈 경우에는 문화재 발굴도 제대로 안 되거나 파손이 되어도 그것이 큰 개발 논리에 묶여서 유야무야되는 경우를 우리가 봤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이 없다, 지방정부하고의 문제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특히 문화재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큰 지역 같은 경우에 아예 시간이 걸리니까 개발 설계 과정에서 자연녹지로 돌리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의 그때 질의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획기적인 안을 발견한 중에 현실적으로 제일 빠른 것은 지표조사단 15명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하면 1700건 중에서 약 700건의 국책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결론에서 그것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2차적으로는 30개 발굴기관을 발굴공단으로 바꿔 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발굴기관협의회를 사단법인 만드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먼저 박찬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창경궁에 대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말하자면 소장관사입니다. 궁 하나를 통째로 개조를 했는데 제일 위의 왼쪽이 보일러실, 그쪽이 방 하나, 두 번째가 서재, 그 옆의 네 번째가 다실, 이쪽의 가운데로 길게 늘어선 것이 거실, 거실 건너 오른쪽 맨 밑이 주방, 그 옆이 목욕탕, 그 옆이 두 번째 방, 소장 한 사람이 이

렇게 엄청난 공간을, 밤의 왕입니다. 창경궁에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안에 조금 보는데도 1만 5000원 내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궁에서 임금같이 살고 있는데 과연 소장의 결정으로 저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청장이 저렇게 고치라고 하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사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해 가지고……

○손봉숙 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것 원형 훼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외부에 있는 목조건물의 원형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니다.

○손봉숙 위원 외부에 있는 것 조금 전에 박찬숙 위원이 보여 주셨잖아요. 뭐 다 뚫고 쓰레기 놓고 전기줄 왔다 갔다 하는데 외부의 원형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사무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는 전기선 넣어야 됩니다.

○손봉숙 위원 전기선을 넣는데 그렇게 아무 데나 뚫어도 외부 공간은 훼손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궁은 반드시 사무실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궁은 왜 관사가 없습니까, 여기만 관사가 있는 이유가 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래서 관사를 철폐했습니다.

○손봉숙 위원 오늘도 한 사람이 쓰고 있다는 것 확인했는데 언제 철폐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관사는 철수했습니다. 지금 당직실로서만 남겨져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저것 저대로 남겨둘 겁니까, 원형 복원해야 되겠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원형 복원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요, 복원문화재하고 고유문화재하고는 다르고요.

○손봉숙 위원 복원문화재하고 고유문화재하고 다른데, 이것은 그러면 별로 필요 없는데 환경상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했다 이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렇지요, 창덕궁의 분위기를 살려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손봉숙 위원 그러면 이것 분양을 하면 어떻습니까? 구하시면 일반인들, 돈 많이 내는 사람들

가서 밤에 잘 사람 많을 겁니다. 저부터 신청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저 보이는 공간에 쓰고 있는 것이 스물 몇 평……

○손봉숙 위원 서른아홉 평입니다. 한 사람이 서른아홉 평을 정부 돈 7억을 들여서 고쳐 가지고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완벽하게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오늘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 전부 가서 구경하자고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있던 대로 원상회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활용에 관한 철학과 입장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한번 문광 위원님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의견을 들겠습니다. 이것이 KBS에서……

○손봉숙 위원 청장님, 그렇게 철학철학 하시는데, 들어 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철학이 있는데 무식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철학이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니요, 그것이 활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손봉숙 위원 아니, 활용이라는 게,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한 사람이 밤에 방 한 칸 정도를 정말 수수하게 해서 잠을 자면서 지킨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됩니까, 이것이 활용입니까? 궁을 저렇게 쓰도록 하면 누구든지 쓰기를 원하지요. 청장이 더 답답한 표정을 짓네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어차피 거기가 당직실이든, 사람이 기거하려고 그러면 화장실하고 기본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손봉숙 위원 아니, 왜 거기서 잠을 자야 되지요, 다른 궁에서는 왜 안 잡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당직실이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당직실이 서른아홉 평이 필요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서른아홉 평 아니고……

○손봉숙 위원 저런 초호화판 궁궐을 저렇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데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마 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창경궁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리소 완전히 제대로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창경궁의 소화전에……

○문화재청장 유홍준 창경궁입니까, 창덕궁입니까?

○손봉숙 위원 창덕궁입니다.

소화전의 소화기가 완전히 점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 점검했는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 태워 먹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스무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소화전 실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장, 최구식 간사와 사회교대)

○손봉숙 위원 소화전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관사에서는 밥을 해먹고 전열기를 놓고 이래도 철학이 부족하다고 그러니 참, 저도 답답합니다. 철학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을 주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 반환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는 반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위원 그런데 왜 기증으로 둔갑되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현물을 받아 오는데 테라우치 문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북관대첩비 받는 것, 왕조실록을 받는 데에서, 반환하는 쪽에서 반환이라는 말 대신에 기증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라우치의 경우에는 경남대학에서……

○손봉숙 위원 지금 조선왕조실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조선왕조실록의 경우에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손봉숙 위원 그것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을 기증으로 둔갑시킨 것 아닙니까, 소장 목록하고 유출 경위에 대한 공식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정확한 규정은 아니어도 우리가 추정으로 물증을 댈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반환을 하라고 한 것이었고……

○손봉숙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손봉숙 위원 반환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증으로 둔갑하게 내버려 두는지 그 사유를……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은 그쪽에서 서울대학교에 일방적으로 기증을 했던 것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을 것인지, 반환해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 서울대학교 규장각 실무자하고 김원웅 의원님하고 정념 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삼국시대 고분 또 예산집행에서 드러난 예산낭비 실태, 울산 반구대 암각화 훼손을 부추기는 무리한 시설 건립 또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청장님, 저는 이번에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시골의 아주 유명한 한학자가 보낸 건의서를 보고 알았는데 ‘육서심원’이라는 책이 있다면서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계진 위원 혹시 직접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직 본 일은 없습니다.

○이계진 위원 국내에도 처음에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고려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국회도서관, 이화여대도서관 이 네 군데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초고, 육필 원고는 없지만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최규동 박사가 40년도에 했다는 책, 30부 간행했던 것 네 부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계진 위원 이 책에 대한 가치를 청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문화재위원회의 고서담당 위원님께 한번 위촉을 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저희가 좀 알아본 바로는 이 책이 초고를 찾으면 국보적 가치가 있는 책인데, 그것이 지금 네 군데에 아마 영인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자의 원류 고장인 중국의 ‘강희자전’보다도 많고 ‘집운’이라는 자전에 있는 내용보다도 많고 한 7만 자에 대한 해설

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것이 한국의 4대 저술이라고도 분류가 되고 대만의 갑골문화학자 동쥘빈, 이분이 평가한 바로는 ‘육서심원이라는 책은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전무후무한 대단한 책이다,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문자서의 집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이것을 서울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규모가 대단치 않은 출판사에서 아마 영인을 해서 파는 모양인데 상태가 대단히 나빠서 보기도 어려울 정도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경인문화사에서 영인본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이것을 해석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영인본이라도 제대로 하고 초본을 찾는 노력을 해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어떤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있는 책인데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혹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영인본이라도 해서 이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학자들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한정판이라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하면 어떨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것이 동산문화재과의, 문화유산국장 담당이거든요.

○이계진 위원 청장님이 워낙 잘 아실 거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계진 위원 나중에, 그것을 업무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그 가치를 저희가 몰라서 이런 기회에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1차적으로 동산문화재과의 안건으로 올려서 전문가들의 내용 검토를 끝내고 지금 존경하는 이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합치된다면 저희들이 영인본을 내는 것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한학자들의 얘기는 이것이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하는데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영인본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이런 건의서를 보냈더라고요. 건의서 보낸 분이 필요하면 제가……

○문화재청장 유홍준 혹시 건의서를 저희에게도 한 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예, 연락처랑 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덕궁 건물 두 분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관람료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렸지 않느냐, 탄 나라에 비해서도……

(최구식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가 잠깐 해명해 드려도 될까요?

저희 창덕궁이 15분 간격으로 단체 입장을 함으로써 상당히 유지가 잘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에는 고급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계진 위원 저희도 너무 싸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렸지 않느냐 그런……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은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람 방식을 다양화한 것으로, 목요일 하루에 대해서만 1만 5000원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재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1만 원을 해도 5000원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루 관람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만 원으로 올린 이후 목요일날 관람객을 보면 약 7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1만 5000원……

○문화재청장 유홍준 1만 5000원으로 올리고 목요일날이 지금 두 번 지났는데 목요일날 입장객수가 700명 정도고 그중에 600명이 외국인입니다.

○이계진 위원 외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등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조금……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을 중국이 그렇게 하다가 유네스코의 지적을 받고 철폐를 했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습니까?

탄 데는 그런 것이 꽤 많은 것 같아서……

○문화재청장 유홍준 더구나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인으로 할인하기는 힘듭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통공예의 맥을 잇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육서심원’ 얘기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위원 앞의 문광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립박물관에서 북한문화재 90점 전시하고 있는 부분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문화재청 현안업무보고에서 ‘개성 만월대 남북 첫 공동발굴’ 보고해 주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천영세 위원 2004년 7월에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북한의 문화유산으로서는 두 번째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천영세 위원 하여튼 이런 꾸준한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7대에 등원해서부터 전반기 내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문화유적지 안의 군시설 또 군부대 내의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 지적과 과제들 또는 해법들 이런 것들을 놓고 일관되게 즉 제시를 해 왔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6월 8일날 미군기지를 포함해서 군부대 내 지역문화재 조사를 올해부터 향후 5개년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더군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맞습니다.

○천영세 위원 이것은 정말 잘하는 일 같은데 조사 이후의 보존계획은 무엇입니까,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지?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조사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물가치의 선별에 따라서 보존하고 하는 계획은 따로 세우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구체적 계획하고 중간보고서 나오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천영세 위원 아까 북제주군 우도 신석기시대의 패총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는 부분의 지적이 앞에 몇몇 위원들께서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가 특히 근래에 와 가지고서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시 문화재보호구역의 나주읍성 이것이 사적 337호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맞습니다.

○천영세 위원 서성문 성벽에서 불과 2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전남 나주시에서 내줬더군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공사중지명령을 바로 냈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논산 시립납골당,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쌍계사……

○천영세 위원 쌍계사에서 100m도 안 되는 지점에, 보물 408호 쌍계사 대웅전이 있는데 공사를, 이렇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단속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 비일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지적을 좀 해서 어떤 그런……

지난 3년간 문화재보호법 위반 유형별 건수, 조치, 그래서 공무원하고 일반 시민으로 구분해서 이것을 자료로, 문서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울러서 아까 정책홍보관리관이 보고한 주요업무 중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서 5억 9000만 평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땅을 사용할 적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명시하는 작업, 이것이 되면 상당 부분 시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울산 반구대 암각화 지적이 있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천영세 위원 저한테도 그에 대한 대책을 문건으로 좀……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 반구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천영세 위원 시간이……

예.

○문화재청장 유홍준 반구대에 전시관 짓는 것을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 예산은 문광부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래등 형상의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한 시민으로서의, 문화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제가 시민단체하고 울산시의 설계자들을 다 불러서 중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예, 말씀하세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래서 울산 현장까지 가지고, 현재 전시관 짓는 데가 반구대 암각화로 부터 800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미 토지를 전부 다, 자연현상에서 전시관을 짓도록 다 성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친환경적으로 짓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설계자는 설계를 변경해라 하는 것으로 중재를 했는데 또 일부 시민단체 두 군데가 나와서 ‘그것은 원형으로 가야지 거기다 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해 가지고 울산시는 착공하려고 하다가 문화재청장이 중재에 나서서 중재했다가, 어디까지가 시민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다 합의를 해서 울산에 있는 10개 단체까지 통합을 했는데, 2개의 학술단체가 반대를 해 가지고 이제는 제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울산 반구대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중재하려고 했는데 중재가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래서 대책이 없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시한 안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새로 설계하는 비용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파이낸싱을 내가 개인적으로 해 주겠다, 1억 5000만 원을 내가 국가 돈으로는 못 주니까 어느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해 줄 테니 이것은 새로 짓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들어가려는 집이 이와 같은 고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는 안 된다, 천연의 자연 계곡에 이런 끔찍스러운 건물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술종합학교 민현식 교수에게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 가지고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바뀌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단체·학계·학술단체를 제가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가지고……

○천영세 위원 그쪽을 수용해서 문화재청에서 재검토할 수 없어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

면 지금 사적으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미 허가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 위원 청장님, 2005년도 감사 결과 지적받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윤원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 받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윤원호 위원 그런데 써야 될 곳에 써야지, 냉방기 구입이나 사무용품 구입에 1억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연말쯤 되었을 적에 불용액이 나올 경우, 그때에는 일반 예산으로 냉방기나 이런 것이 반영되기가 참 힘들어서 그런 기회에…… 어차피 불용을 할 때 복지적인 차원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윤원호 위원 8억 1600만 원이나…… 너무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다음 문화재 시설 입장료를 인상해서 43억의 초과수입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35억으로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고 에어컨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어서 중앙일보에다가 다시 했는데요.

○윤원호 위원 감사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경복궁에 근무하는 사람이 20년 되도록 해외의 다른 고궁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수입대체 경비가 오른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고궁을 관리하고 있는가 일본·중국 또는 유럽으로 보냈던 해외연수 차원인데, 이것 여행이라고 단어를 바꿔 놓으니까 여행이 돼서 저희들이 당혹스럽기는 합니까마는 저는 직원들의 해외연수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보내 주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윤원호 위원 해외연수로 명칭을 바꾸더라도,

이렇게 지적받도록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예산낭비 사항이 그것뿐 아닙니다. 지금 창덕궁 내에 있는 영군번소, 내병조, 원역처소 이렇게 세 곳인데 이것을 함께 공사했으면 되는데 두 곳 먼저 하고 나머지 하나 한다고, 꼭 연말에 보도블록 뜯어내고 밑에 전기공사하고 수도공사하고 다시 까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산집행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문화재청장님께서 문화재를 잘 관리하는 것도 업무이지만 국민의 세금도 잘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울산광역시에 있는 석남사 가보셨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윤원호 위원 지난 3월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강길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 있으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강길부 의원님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원호 위원 석남사 부도 주변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울산의 문화재 보수사업 모두가 세 건에 15억의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석남사가 가보시면 석남사가……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 위에 도의선사 부도가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윤원호 위원 그 주변 정비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가 왜 안 되었는지 다시 한번 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이것이 총액계상사업이라고 그런데 연말에 어느 쪽의 예산을 끌어서라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약속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담당국장님……

○윤원호 위원 김창준 국장님, 국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문화유산국장 김창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이 석남사가, 영남 알프스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재청문화유산국장 김창준 예.

○윤원호 위원 영남 지역에서 참 명산입니다. 그리고 한 1200m 고지에 있는 석남사는 한국 비구니 사찰로 굉장히 공보하는 절입니다.

○문화재청문화유산국장 김창준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하고 기본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사업은 원래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총액계상 예산인데 다른 예산을 끌어서라도 하시겠다는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월 29일날……

이 답변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꼭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지켜 주십시오.

그다음 이것이 모 신문에 한창 나고 그랬는데 청장님께서 석불입상 등 지정문화재, 돌담길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북 군위군 부계면 주민들과 협의하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직 저는 안 했고 담당과장님이 가셨습니다.

○윤원호 위원 굉장히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런데 주민들이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원호 위원 오해가 없도록 미리 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지……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런데 10개 중에서 9개 마을은 다 설득이 되었는데 이 군위 한밤마을만 설득이 안 되어서……

○윤원호 위원 경북 지역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윤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현안사업 중에 개성 역사지구 부분인데요. 공동 발굴조사를 올해 7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62일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게 해서 발굴조사 보고서도 발간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내년도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재웅 위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올해 잠정 등록, 신청을 북한에서…… 잠정 등록은 이미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심의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측에다 얘기해 가지고, 문화유산에 대한 UNESCO 심사는 일사부재리라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하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왕궁터인 만월대에 대한 발굴, 그다음에 개성박물관에……

○**이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재웅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내년의 등재 신청이요?

○**이재웅 위원** 예.

○**문화재청장 유홍준** 내년의 등재 신청이, 지금 현재 반반입니다. 북측에서는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랴사라 유적지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북측에서도 어렵게 따라와 주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서 2007년 2월에 가능한 것입니까? 신청이……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 생각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마치 내년 2월로 등재 신청 예정을 못 박아 놓으니까 저는 이것이 가능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여행 경비, 초과수입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썼다고 그러시는데, 30년이 되도록 한 번도 해외에 못 가 보았다……

좋습니다.

직원들에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 주는 것은 청장님의 재량권이 된다면 가능한데, 그런데 초과수입으로 인정받은 것을 쓸 수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재웅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여행 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수입대체 경비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예산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요, 수입대체 경비 집행지침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도 쓰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재웅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도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대체 경비로 쓸 수 없는 것, 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비들을 쓸 때 규정에 맞게 써 주시라는 것이지, 해외여행 보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하여튼 집행지침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반환이 만일 되면 지금 서울대에서 보관하겠다는 것하고 불교계에서 보관하겠다는 것하고 첨예하게 다른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내일 오후 2시 고궁박물관 제 집무실에서 국회 김원웅 의원님하고 월정사 정념 스님하고 또 서울대학교 규장각 관장, 대학원장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이 같이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서로 어디가 가져간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양쪽에 부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갈등은 비쳐지지 않고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제 능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함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외 문화재가 7만 4459건이고 05년도까지 350개 소장처에 8259점이 있다, 이 통계는 맞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광재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국내 기준으로 국보급하고 보물급을 보면 7만 4459개 중에 대략 몇 개, 몇 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거기까지는 아직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략 개수는 이해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해외 문화재 조사를 문화재연구소에서 꾸준히 해 갖고 도록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을 국보·보물급으로 분류하는 작업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 정해 놓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 아닌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는 것은, 명백한 약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선순위로 들어갑니다.

○이광재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 보존, 우리가 만약 반환을 못 받더라도 문화재 실측 기록 DB를 한다든지, 원문 이미지 DB를 만든다든지, 문화재 영상기록 DB는 소장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면, 그 정도가 가능하다면 반환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일차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은 지금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왔던 실적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두 번째로 지방에 있는 문화재인

데, 지방에 있는 문화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06년도에 84개, 912억 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 맞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맞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런데 제가 홍천의 수타사라는 절을 가 보니까 한 120년 전 큰 그림,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상태를……

○문화재청장 유홍준 탕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광재 위원 예, 제가 편지도 보냈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광재 위원 지방으로 이양할 때 예산을 주게 되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전문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냥 돈만 가고 사람이 가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인력 문제가 함께 연동 되어지는 체킹 시스템을 안 만들어 주면 실질적으로 돈은 가고 대부분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문화재가 방치되는 결과가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광재 위원 연동의 체킹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광재 위원 세 번째로는 독일의 역사학자인 슈리만은, 물론 도네이션(donation)도 받았지만 자기 돈의 전 재산을 넣어 가지고 미케네 문명을 발굴했잖아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광재 위원 지금 중국에 가 보게 되면 1만 2000평 정도를, 건륭 황제 시절을 복원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광재 위원 거기에는 한 사람이 막대한 도네이션을 한단 말이지요. 우리는 지금 ‘1 문화재 1 지킴이’라고 해서 13개 기업이 한다고 하는데……

현재 문화재청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발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중요 정도를 나눠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허용해 준든지 또는 이용에 있어서 권한을 준단든지 또는 근본적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문화재청의 예산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획득해서 발굴 작업을 가속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그런 시각에서 국민신탁법안이 금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문화유산을 위한 국민신탁법인이 출범을 하게 되고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이고 이견창호 회장으로 계신 박영주 회장이 내셔널트러스트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도네이션을 받는 것이, 문화재청은 현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국민신탁법인을 통해 가지고 받아서, 우리 국고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을 기부문화화…… 특히 돈뿐만이 아니라 어느 종가집이, 그 전체를 국가에 위임한다든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광재 위원 대략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것은 저희가 받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가지 동산 문화재하고 부동산 문화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화가의 유품 전체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가를 저희가 받는 것이 있고, 이것을 받으면 국민신탁법인에서는 사람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처럼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번지면 문화재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 세법상에 유리한 부분은 있는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재정부 쪽에서 조세감면, 그다음에 상속세 감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 그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장윤석 위원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화재청장님 인사말씀, 이것 위원들 보라고 배포하신 것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張倫碩 委員 청장님 인사말씀이기는 합니다는 좀 어법이나 예법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죄송합니다.

○張倫碩 委員 그리고 청장님께서 부석사에 여러 번 다녀오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여러 번 갔습니다.

○張倫碩 委員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북 영주가 제 지역구입니다만 거기에 국보가 몇 점이나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다 세어보지 않았는데, 무량수전하고 소조불하고 조사당하고 벽화하고……

○張倫碩 委員 전국에 국립박물관이 여러 개 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張倫碩 委員 대체로 문화유적이 많은 곳에 박물관이 있는데 국립박물관이 없는 지역…… 지방도시 중에서는 국보를 가장 많이, 또 보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경북 영주, 부석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張倫碩 委員 그래서 혹시 청장께서, 또 새로운 문광 위원이 왔으니까 영주 지역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오셨나 해서 한번 여쭙어 봤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위낙에 영주는 여러 번 가서……

○張倫碩 委員 그런데 신라문화권·백제문화권 해서 경주·부여를 중심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영주의 경우에도 사실 부석사라든지 소수서원, 유불문화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북 북부지역의 유불문화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석사 사찰에 성보박물관을 짓습니다. 그 건축을 지자체에서 시행해 가지고…… 좀 세련된 것이 없어서 저희 문화재위원회를 그 현

장에서 네 차례 열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아주 흡족한 결과가 왔다고 저에게 보고가 왔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런 경우에, 사실 지자체의 안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또 중앙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張倫碩 委員 4월 4일날 조선일보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개집으로 변한 삼국시대 고분’ 기사를 기억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순흥……

○張倫碩 委員 예, 순흥 지역입니다. 경북 영주 지역의……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알고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아시는 대로 고구려 벽화고분은 북한과 만주에 90여 개 이상이 있지만 남한 지역에는 영주 순흥에 2개를 포함해서 벽화고분을 한 4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어숙묘……

○張倫碩 委員 그런데 최근에 동양대학 교수가 그 주변을 답사했는데 아직도 버려진, 또 도굴이 되다시피 한 그런 흔적을 많이 발견했고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張倫碩 委員 이 보도를 보셨다고 하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가 바로 현장에 보냈는데요, 그 일대에 저희가 사적지로 지정한 것에서 빠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져 있는 곳을 사적지로 추가 지정해야 되는데 사적지로 추가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허가해 주지 않아서 아직 사적으로 확대는 못 했고, 저희들이 관심을 쓰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중앙, 문화재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지역 주민도 상당히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張倫碩 委員 최근에 이른바 합법적인 도굴이 있다는 보도가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산 소유주들이 불순한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해 가지고 분묘 이장 신고를

해 가지고 과거의 고분,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도굴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문화재청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정책 수립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張倫碩 委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 위원 이광철입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는, 조선왕조 때 사용하던 옥새 상당수가 분실됐고, 언제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소재 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광철 위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옥새가 13개 남아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하나도 없고 일부가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도 있으나 최종 확인해 본 결과……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예.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현재 남아 있지 않고, 그것은 당시 기록상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대한제국 멸망 시까지 있었는지 존재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감사원이 발표한 대로 옥새 13개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남아 있지 않고 어떻게 분실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그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록상에 13개가 있는 것으로 전해오는데 그 13개가 대한제국 멸망 시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이광철 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실되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 말이지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예, 그냥……

○이광철 위원 기록에 의하면 13개가 있어야 하고……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예, 맞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 기록은 언제 때 기록입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그것은 한말의 기록에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한말 이후에는 모른다는 것입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예.

○이광철 위원 48년도에 제작된 대한민국 1호 국새 ‘태극익용’ 이것도 분실되었지요. 1963년에 제작된 국새 2호, 지금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지요? 30년 동안 사용되다가……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예.

○이광철 위원 국민의 정부 시절 3호 국새 ‘봉황’을 만들었는데, 제작 단계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광철 위원 현재 폐기를 앞두고 있지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예.

○이광철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국새를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행자부에서는, 3호를 만들 때처럼 국새자문위원회에 정작 필요한 옥새 전각장은 참여하지 않고 있지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예, 맞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리고 7년 전에 만들 때하고 똑같이 전통 방식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옥새 전각장, 전통적 방법으로 옥새를 만드는 것이 비법으로 전수되어 왔었는데, 국새 1호를 제작한 정기호 민홍규 씨로 인해 600년 동안 이어온 명맥들이, 새로 옥새를 만든다고 할 때 전통 방식을 아는 분들이 참여해서, 마치 옥새는 국운과도 관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제작되는데 문화재청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새 전각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고, 옥새라는 것은 전각이 아니라 주물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장인들이 모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어떻게 전통으로 내려왔고 계보가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하게 검증을 받아야만 대표적인 우리 문화재인 이 옥새가 남부끄럽지 않

게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조선의례가 전하는 조선 옥새 전각장 계보, 1610년 광해군부터 이어지는…… 국가기록원 자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니에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새 만드는 것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문화재청에서 당연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소재구 원장이 참석하고 있지요?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재구 예, 맞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참석하고 있는데, 민홍규 씨가 옥새장으로서 헌신적으로, 자기 폐까지 망가지면서 여태까지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산에 있던 석불 정기호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아서 이렇게 책도 내고 그리고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전통 옥새 방법을 자기 스스로 전수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건의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야기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까마는 민홍규 씨나 이런 분들은 ‘나에게 맡기려면 전적으로 다 맡기고 아니면 말아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로서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적극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양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광철 위원 옥새는 주물로 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도장 부분과 밑부분을 나눈다고 하니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비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하는 비법에 대한 연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가치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현재 민홍규 씨가 하고 있는 모든 제작 과정들이, 전통이 끊어졌던 것을 이분이 재생하는 것이거든요. 재생한 것이 미술사적으로 공예사적으로 전통에 맞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금도금하는 방법을 어떻게 썼는가에서부터 여러 가지인데, 사실 도금을 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시행착오를 못 해 온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아무튼 지금 존경하는 이광철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옥새 전승 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2002년도에 옥새장을 무형문화재로 하는 심의를 한 번 했는데 그 당시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옥새 제작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최근에 발생한 창경궁 문정전하고 수원화성 서장대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문화재 방재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발생한 주요 문화재 화재는 총 22건이고 화재 원인을 보면 전기 누전·합선이 11건, 실화가 2건, 방화가 4건, 산불이 2건 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미리 점검을 철저히 했더라고 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5년 4월의 낙산사 화재로 인해서 방재시스템 구축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왜 2006년 6월 19일에서야,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그렇게 늦게서야 썼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안을 계속 제출하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서야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부끄럽습니다마는 그 당시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2005년 12월에 문화재보호법에 그것을 강화해 놓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굉장히 몸 둘 바를 모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난계를 설치해 가지고 전담 인원을 두고 앞으로는 재난구제를 과로 보강해

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서 현재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에 대해서는 방재시스템 구축 용역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줬어도 벌써 줬어야 됐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문화재 재난 대책반입니까, 과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은 계로……

○**정병국 위원** 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대책반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 대비 정기훈련이라든가 각종 문화재가 천재에 의해서 망가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앞으로 보강을 하고요.

○**정병국 위원** 시일을 자꾸만 늦추시는데 시일을 늦추다가 그 이후에 벌써 방화사건만 2건이 난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가 잠깐 변명을 드리면 2006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책정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사업 발주를 했는데 낙찰자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가지고 재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것이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정병국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시급성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재입찰을……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약탈 문화재와 관련해서 아까 이광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 유출 문화재가 7만 4000여 점이 있는데 이 중에 중요도를 따지기 이전에 약탈된 문화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명백한 약탈이라고 판단되는 유물이 가장 중요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따로 서면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혹시 언론

에 보도되어서 그 소유자한테 갔을 때 반응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23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 로스 앤젤레스의 폴게티박물관에 있던 이탈리아 고미술품이 반환되었다는 것을 보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병국 위원 정부에 이것을 반환받기 위한 어떤 대책 기구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우리 정부예요?

○정병국 위원 예.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현재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문화재청 혼자서 하기에 쉽지가 않을 것이니까 이것도 대책반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숫자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고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지금 하나의 좋은 예가 일본 동경대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 47책을 민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환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소유를 어디로 하느냐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렵게 갖고 온 것을 가지고 또 소유가 누구한테 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이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반환시킬 수 있는가, 지금 약탈된 문화재를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 전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유 청장님께서 임명되신 지 2년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22개월 됐습니다.

○전병헌 위원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대중들의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취임하셨는데 22개월 동안 문화재청장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은 좀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할만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병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업무를 좀 살펴보니 사실상 국립문화재종합병원의 삼을 뜨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1문화재 1지킴이 운동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활용과를 신설해서 문화재를 관광상품과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도 상당히 평가받을 만하다, 문화재청 업무를 한번 훑어 보면서 유홍준 청장께서 이 세 가지는 남다르게 업적으로 평가받을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업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스태프진들의 아이디어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같이 일을 했고, 저희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병헌 위원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대해서 아까 이광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개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역시 기업체 부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기조라면 기업체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여러 가지, 언론사나 방송사 또 국정홍보처 등과 협력해서 이것을 프로모션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더 이것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을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까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 때 답변하면서 내년 3월부터 가동되는 문화유산을 위한 국민신탁법인이 되면 아주 획기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1문화재 1지킴이에 13개 회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에 6·25동란 때 쓰러진 철마가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녹슬지 않게 완전히 방부처리를 하는 것을 포스코에서 약 4억의 돈과 자기 기술로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왕릉의 잔디 관리를, 저희는 풀 뽑는 수준인데, 한화그룹에서 골프장 잔디 관리하는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1주일 할 일을 한나절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광범위한 참여가 유도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광부에 대한 질의 때 74434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문화재청장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마운 프로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프로도 말하자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과 좀 연계시키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상당히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장 유홍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활용과를 신설해서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신데 결국 관광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은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청장님께서 쓰신 책을 읽어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꼭 그 장소에 가고 싶은 그런 느낌들도 꽤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콘텐츠를 문화재청에서 개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 문화재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드웨어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해당 문화재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그것을 관광상품과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향토사학자하고 향토문화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맨파워와 어떤 지적 가치를 누적시키고 네트워크화시키는 것이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신설해서 반영을 하고 네트워크화하는 작업이 상당히 긴요한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향토사학자들하고 연계하는 것은 꾸준히 하고요. 종갓집 만머느리 간담회 같은 식의 이벤트를 통해 문화유산의 현장에 있는 분들과 교감하는 것들을 더 증폭시켜 가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이것이 아주 큰 과제이면서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빨리 결과가 안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재활용과를 통해서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최근에 사극물들이 상당히 붓물을 이루고 있고 특히 연구가 일천한 고구려 시대에 대한 사극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증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 부문에만 맡겨두는 것은,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류문화로 나중에 해외에 나갈 자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재청 입장에서 고증에 지원도 해주고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 경북 경주 출신 정종복 위원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94년 3월인데요. 정부에서는 경주시 손곡동과 물천리 일대 29만 평에 경마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발표하고 그해 6월에 정부에서 경마장건설사업 시행을 정식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문화재연구소 등에서는 그해 9월부터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96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했던 것인데 발굴조사 이후에 문화재청에서는 경마장 건설 예정지 발굴 결과 신라시대 산업생산활동 및 생활사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유구 및 유물들이 확인되었고 역사적·학술적인 면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 사적지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종복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중이던 경마장 건설이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마장 부지는 그 당시에 발굴조사를 하면서 파헤친 맨 땅이 그대로 드러난 채 있고 또 발굴조사과정에서 산림도 훼손되고 산기슭, 논밭이 마구 파헤쳐져서 지금도 비만 오면 마사토가 인근주민들의 주택가라든가 논밭에 흘러내려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일대는 주민 160여 가구 500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산상 피해를 많

이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사적지 주변 500m 반경 이내는 자기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싶고 또 집 수리를 하고 싶어도 사전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렇게 불편하고 각종 제재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지금 현재 정부가 무턱대고 보전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적지 지정을 적절히 해제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침 문화재청장께서 마사회 회장을 대동하고 현장에 내려와서 보시고 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국가적으로도 25만 평 되는 땅을 발굴해 놓고 난 다음에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참 있기 힘든 일인데 마침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이우재 마사회 회장님께서 저에게 연락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마사회에서 약 240억 돈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했는데 문화재청이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든지 결판을 내자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백상승 시장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현재 복안으로 제시한 것은, 사적지로 지정한 것이 25만 평입니다. 이 25만 평 중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만 평이나 10만 평은 이미 유구가 나오지 않게 교란이 다 된 지역,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가려내 가지고 사적지로 보전할 곳은 그냥 화훼단지라든지 야생조 공원 같은 것으로 해서 유적이 망가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신라시대 때 토기 가마터는 제대로 발굴을 해 가지고 신라토기 전시관 같은 것을 건립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거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하자 해서 경주에서 이미 용역을 췌던 것이 있는데 그 용역 준 결과를 다시 한번 이런 시각에서 검토해 가지고, 마사회하고 이야기는, 물론 마사회도 이사회를 다 통과해야겠습니다마는 마사회가 여태까지 들어간 돈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한번 사적지로 묶은 것을 풀어준 예가 없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마사회에서 이미 그렇게 호의적으로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답변하는 바람에 질의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여튼 빠른 대책을 내놓고 주민들이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정청래입니다.

유홍준 청장이 부임하시고 나서 국감이 끝나고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의 유홍준 문화재청장 답사기라는 글을 원고지 20매 분량으로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해박한 논리 그리고 많은 지식 그리고 많은 문화재에 관한 권위 이런 것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행정적인 면에서 실수하고 마음 상할까 봐 걱정된다 제가 이렇게 썼고 잘해 주실 것을 바라고 썼는데 안 읽어 보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계실 때 다른 어느 분보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것이 SOFA 협상을 해서 주한미군 기지 내의 우리 문화재 훼손의 실태와 보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아파트를 대사관 근처에 세우는 것을 못하게 했던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관파천의 현장이고 중명전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 정동, 옛날의 문화체육관, 팝콘하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것은 문화재 지역규정, 거리규정도 어긋나는데 주한미군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원칙하고는 다르다 이런 부분을 저는 제기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창덕궁 문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빨리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것은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글을 파서 나무에 못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할 분들이 문화재에 가서 훼손하고 있으면…… 못질 당하는 나무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 했으면 빨리 잘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문화재 관람료하고 이것은 이중과세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맞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래서 우리 당의 장복심 의원이 이 부분을 폐지하는 안을 냈습니다. 저도 한번 제 아이들 데리고 작년에 휴가 때 화엄사에 한번 갔는데 안에 숙박시설이 있어서 숙박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차를 돌려서 다시 다른 데 가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재청장께서 대책을 세워서서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른 것 얘기하기 전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문화재청장 인사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인사말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원칙을 잡아가시고 문화재청도 문화유산청으로 임기 중에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의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그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문화재청만 탓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각 제한 규정을 청계천 할 때 양보를 많이 했지요. 그때도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합의 논리에 의해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청을 다시 복원하고 건설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옮겨서 높이 짓겠다 또 이렇게…… 그럼 그 건물이 상당히 절름발이 건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입장에서 또 양보를 할 것인지 그것만 5초 내로 답변하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절대 양보 안 할 것입니

다.

그것은 100m를 넘어서 서울시 조례에 맞췄다고 하지만 500m에 관해서는 저희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됐다는 데 문제점이 있지만 오세훈 새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옮기든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하자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정청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발굴 예산, 재원, 사람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팝콘하우스 문제는 제가 서면답변을 받고 문화재청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감사합니다.

○정청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위원 경남 진주갑 출신의 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 질의에서 재임 중에 업적을 물었는데 아주 겸손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재임 중에 북관대첩비 반환받으셨지요? 그것은 업적 중에 보람있는 일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한 것은 한 민간 차원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최구식 위원 중요한 일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공은 초산 스님하고 김원웅 의원님 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구식 위원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 두 명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하고 김시민 장군입니다.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가 일본에 있다는 것 아시나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김시민 장군은 1592년에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지난주에 역사스페셜을 보니까 진주대첩이 한산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패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

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옳은 지적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최구식 위원 그러면 김시민 장군의 공신교서, 그러니까 공신으로 뭐라고 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교서입니다.

○최구식 위원 어느 정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면 보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구식 위원 당시 공신교서는 임진왜란 관련해서 18장이 발급됐고 현재 국내에는 4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최구식 위원 4장 모두 보물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보물 이상으로 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최구식 위원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아신 것은 언제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최구식 위원 아시고 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국회니까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항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진주박물관이나 국립고궁박물관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박물관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유물구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팔려는 사람 의사와 관계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팔려는 사람이 1400만 원을 요구할 때는 못 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개인 컬렉터가 이것을 사 주기를 희망해서 한 쪽과 접촉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특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교서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최구식 위원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정책입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사

오든 국가가 사오든 사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진국의 경우에 자국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우리처럼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제가 필요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내셔널 트러스터 같은 제도가 나오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장하고 진주박물관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시작하시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이 사안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걸리겠습니다마는……

○최구식 위원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환수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최구식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문화재의 불법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 도난도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도난이나 도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 경찰청도 그렇고 고미술협회도 그렇고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뾰족한 효과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99년도인가 문화재 거래를 규제 완화 했는데 지금 허가제로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엄격히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고미술협회하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환적인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99년도에 모든 규제개혁 철폐할 때 같이 묶여서 철폐가 되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은 맞

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때 당시에 매매 자격 요건도 없어진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노웅래 위원 전문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가치라기보다 금전 가치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보고할 의무도 없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장물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때 다 규제완화하면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허가취소가 아니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완화되었지요.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검토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고미술협회하고 이미 허가를 받았던 300개 못 되던 곳이 신고제로 해 놓으니까 지금은 거의 900개에 가까워졌고 그것도 한 7년이 되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고미술협회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민법상에는 선의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선의 취득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실제로 많이 배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는 실정으로 있는 것을 보면 제한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선의 취득 규정 때문에 문화재에 별문제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을 악용하는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아까 정청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까? 오세훈 당선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은 질의 안 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도 문화재청이 서울성곽 복

원·정비사업, 유네스코 세계역사도시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세훈 당선자의 공약인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과 겹치게 되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노웅래 위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오세훈 당선자하고 같이 서울성곽하고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은 안을 제대로 몰라서 실무적으로…… 서울을 유네스코 역사도시로 하는 것은 서울시도 원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도 원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복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데는 흔적을 남겨 놓는 복원방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하셔서, 자칫하면 복원계획 자체가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청장님, 송조표전종류 잘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강혜숙 위원 그것이 지금 전체 10권짜리가 찢어져서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이 전책이 분리되기 전에 합쳐져서 한번 나왔을 때 매입을 못 해 가지고 세 동강으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런데 청장님 이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분리된 것은 지난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신청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한 묶음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처음에 4권 1책 샀을 때 이 책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강혜숙 위원 경기도박물관에서 4권 산 것이 작년 10월이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작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숙 위원 10월이 아니고 7월입니까?

그런데 제작년 8월 중앙박물관에 매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장자가 5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강혜숙 위원 이것이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문화재위원 5명이 평가를 너무 낮게 하면서 소장자가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구 고서점에서 이 10권을 경매하면서 3억 5000만 원에 내놓고 그러면서 유찰이 되었는데, 처음에 재작년 8월에 문화재위원 5명이 평가를 하고 바로 이것을 알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때 그 평가는 문화재위원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구입위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강혜숙 위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세 번째가 문화재위원이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은 문화재위원회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데 문화재위원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회의 자체는 유물구입심의위원회입니다.

○강혜숙 위원 그러면 유물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청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는 얘인데……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 경우는 소통이 안 됩니다.

○강혜숙 위원 안 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얼른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희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바로 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권짜리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열 권짜리로 아주 온전한 것인데, 가지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것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직권으로 가지정하는 것은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처음에는 매도 신청을 할 때 5억을 요구한 것이 지금은 계속 떨어지면서 경기도박물관,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일부 사고, 중앙박물관에 또 매도 신청이 나와서……

○문화재청장 유홍준 한 5배가 된 것 같습니다.

○강혜숙 위원 글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저희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지는 하지만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완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희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니까 기동성이나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3억에서 살 수 있는 것을 15억에도 살 수가 없는 일로 된 것 같습니다.

○강혜숙 위원 글썄요, 합해 보니까 20억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그중에서 네 권은 행방도, 어디 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쫄딱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선왕조실록의 기증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손봉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증에 대해서 문화재위원장께서 일본 지식인의 양식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존심도 역사의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이 문화재위원장님이 신문기자하고 인터뷰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중에 마지막에 ‘그래도 일본에 양심적인 지식인이 있어서 이것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문장을 마지막 문장만 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혜숙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반환운동이 불교계가 주도가 되어서 환수위원회를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강혜숙 위원 그러면서 국회의원 모임도 꾸려지고, 북한하고 민단에서도 지지연대를 표명하면서 고강도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동경대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복해서 받아낸 것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이렇게 민족적 합의를 거쳐 가면서

반환운동으로 번져가는 것을 일본에서 차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맥을 끊으려고 서울대를 지정해서 기습적으로 기증한……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러니까 일본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갖고 시간을 더 끌어야 손해난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것이 본래 규장각 소유였거든요? 위치는 오대산에 있었어도 소유는 규장각 것이었고 관동대지진 때 그것이 타지 않은 것이 일부 누가 그것을 공부하려고 대출을 받아 놓은 것이 서울대 규장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경대학교에서는 명분상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빨리 기증을 해 버리는 것이 좋다 해서 그런 조치를 했고, 서울대가 그것을 그냥 받았던 것입니다.

○강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사사로운 것일 수 있습니까? 자신이 퇴임하기 전에 서울대총장이 기증받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날 서울대학이 이것을 인수를 받아서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5월 30일날 환수위원회가 또 일본에 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장처를, 약탈자가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쪽에서 지정한 바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받고 나면, 내일입니다. 내일 서울대하고 환수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규장각을 왜 서울대학이 관리해야 되는지, 원래대로 문화재청이 관리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규장각에 있는 책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 그대로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런데 연구를 위해서도 이미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서울대학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구가 엄청나게 큰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학예원도 약 40명씩 있고 그래서 현재 규장각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

니다.

○위원장 조배숙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지요.

○강혜숙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궁박물관이 이것을 통합 관리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여튼 저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도중에 김재운 위원, 박찬숙 위원, 손봉숙 위원, 박형준 위원, 우상호 위원, 이계진 위원, 천영세 위원, 윤원호 위원, 장윤석 위원, 정병국 위원, 정청래 위원, 강혜숙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질의·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소속 기관장, 산하단체장,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 | | | |
|-------|-------|-------|-------|
| 강 혜 숙 | 김 재 운 | 김 재 홍 | 김 학 원 |
| 김 희 선 | 노 웅 래 | 박 찬 숙 | 박 형 준 |
| 손 봉 숙 | 우 상 호 | 윤 원 호 | 이 계 진 |
| 이 광 재 | 이 광 철 | 이 재 웅 | 장 윤 석 |
| 전 병 현 | 정 병 국 | 정 종 복 | 정 청 래 |
| 조 배 숙 | 천 영 세 | 최 구 식 |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김 문 회 |
| 전 문 위 원 | 최 민 수 |

○정부측 참석자

문화관광부

| | | | | |
|----------|---|---|---|---|
| 장 | 관 | 김 | 명 | 곤 |
| 차 | 관 | 유 | 진 | 룡 |
| 차 | 관 | 이 | 보 | 경 |
| 정책홍보관리실장 | | 박 | 양 | 우 |

종 무 실 장
문 화 정 책 국 장
문 화 산 업 국 장
문 화 미 디 어 국 장
관 광 국 장
체 육 국 장
관 광 레 저 도 시 추 진 기 획 단 장
문 화 중 심 도 시 조 성 추 진 기 획 단 장
추 진 본 부 장
예 술 원 사 무 국 장
한 국 예 술 중 합 학 교 총 장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국 립 국 어 원 장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장
국 립 중 앙 극 장 장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국 립 국 악 원 장
국 립 민 속 박 물 관 장
예 술 국 예 술 정 책 과 장

문 화 재 청

청 장
차 장
정 책 홍 보 관 리 관
문 화 재 정 책 국 장
사 적 명 승 국 장
문 화 유 산 국 장
국 립 문 화 재 연 구 소 장
한 국 전 통 문 화 학 교 총 장
한 국 문 화 재 보 호 재 단 이 사 장

○기타 참석자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장
한 국 문 화 관 광 정 책 연 구 원 장
예 술 의 전 당 사 장
저 작 권 심 의 조 정 위 원 장
한 국 문 화 콘 텐 츠 추 진 기 획 단 장
한 국 영 상 자 료 원 장
한 국 게 임 산 업 개 발 원 장
언 론 중 재 위 원 장
신 문 발 전 위 원 장
한 국 언 론 재 단 이 사 장
신 문 유 통 원 장

김 성 남 실 기 환 의 찬 재 회
위 옥
백 김 현 창
조 조 이 영 진 일 우 무 규 상 회 수 호 남 호
장 황 이 건 상 경 선 윤 철 흥 형
이 이 권 신 김 김 이

유 홍 준
이 성 원
송 인 범
김 흥 렬
이 춘 근
김 창 준
김 봉 건
이 중 철
이 동 식

김 병 익
송 재 호
김 용 배
노 태 섭
서 병 문
이 효 인
우 조 준
장 행 희
정 남 기
장 기 석

뉴 스 통 신 진 흥 회
이 사 장
한 국 방 송 광 고 공 사 장
한 국 방 송 영 상 산 업 진 흥 원 장
국 제 방 송 교 류 재 단 장
한 국 간 행 물 윤 리 장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서 울 올 립 픽 기 념 단 장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장
이 사 장
영 화 진 흥 위 원 회 장
사 무 국 장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장
사 무 국 장
대 한 체 육 회 사 무 총 장
국 민 생 활 체 육 협 의 회 장
사 무 총 장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장
사 무 총 장

이 창 우
정 순 균
유 균
장 명 호
김 종 심
김 종 민
박 재 호
김 혜 준
김 민 수
김 재 철
박 조 일
최 경 식

【보고사항】

○위원 선임

문화관광위원회

| 위원명 | 교섭단체 | 연월일 |
|--|------------------------------------|----------------|
| 강혜숙 김재윤 김재홍 김희선 노웅래 우상호 윤원호 이광재 이광철 전병현 정청래 조배숙 | 열린우리당 | 2006. 6. 20 |
| 김충환 김학원 박찬숙 박형준 이계진 이재웅 장윤석 정병국 정종복 최구식 | 한나라당 | |
| 손봉숙 천영세 | 어느 교섭단체에 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 |

○의안 회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6. 4. 28 김재윤·이병석·이미경·이영호·엄호성·홍재형·권영길·이재웅·정청래·최규성·장영달·이해봉·박종근·유인태·이재오·김혁규·노웅래·변재일·배기선·최구식·강혜숙·김명주·심재덕·이시종·오제세·고조흥·신국환·노영민·정두언·원혜영·민병두·제종길·김우남·강창일·안민석·권오을·김종률·김동철·최용규·구논회 의원 발의)

5월 1일 회부됨

觀光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

(2006. 5. 3 박승환 · 한광원 · 박형준 · 김명주 · 박찬숙 · 유기준 · 이인기 · 김성곤 · 김정훈 · 김석준 · 이성권 · 김광원 · 신상진 · 나경원 · 엄호성 의원 발의)

5월 4일 회부됨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006. 5. 9 이광철 · 김재윤 · 이경숙 · 박기춘 · 양형일 · 노현송 · 김춘진 · 권오을 · 서재관 · 신국환 · 이상배 · 김재경 · 강기정 · 김병호 · 한병도 · 정문헌 · 이성권 · 최경환 · 김명주 · 김효석 · 천영세 · 권영길 · 박세환 · 안홍준 · 김학송 · 정의화 · 지병문 · 김우남 · 구논회 · 김학원 · 심재엽 · 오제세 · 정형근 · 우상호 · 주승용 · 이상열 · 김재홍 · 정갑윤 · 정종복 · 선병렬 · 강창일 · 허천 · 이병석 · 김양수 · 김무성 · 김성조 · 김희정 · 윤원호 · 장윤석 · 민병두 · 서갑원 · 강혜숙 · 이정일 · 이시종 · 이상민 · 윤두환 · 조경태 · 김동철 · 이영호 · 박승환 · 이미경 · 김성곤 · 손봉숙 · 류근찬 · 김종률 · 이경재 · 김용갑 의원 발의)

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6. 5. 8 박형준 · 이재오 · 정병국 · 김충환 · 최구식 · 박찬숙 · 심재철 · 정종복 · 이계진 · 우상호 · 안민석 · 강혜숙 · 정청래 · 노웅래 · 이경숙 · 이광철 · 윤원호 · 민병두 · 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0일 회부됨

지역문화진흥법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006. 5. 10 이광철 · 노웅래 · 장영달 · 우상호 · 윤원호 · 이경숙 · 강혜숙 · 이시종 · 서재관 · 조경태 · 김춘진 · 박기춘 · 천영세 · 김재윤 · 박승환 · 강창일 · 정청래 · 민병두 · 채수찬 · 이미경 · 김정권 · 이재웅 · 김재홍 · 이계진 · 김형주 · 장향숙 · 신기남 · 노영민 · 유승희 · 임종석 · 우원식 · 유인태 의원 발의)

5월 11일 회부됨

鄉校財産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5. 23 정부 제출)

5월 24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6. 6. 14 엄호성 · 심재엽 · 이방호 · 이계

진 · 정병국 · 박재완 · 이군현 · 김명주 · 김재원 · 김태환 · 장윤석 · 박순자 의원 발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6. 6. 19 심재철 · 정문헌 · 이해봉 · 주호영 · 박재완 · 박형준 · 고조홍 · 엄호성 · 유기준 · 황진하 · 김명주 · 고경화 · 배일도 · 공성진 · 박계동 · 나경원 · 정병국 · 박찬숙 · 주성영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6. 6. 19 김충환 · 황진하 · 김재원 · 유기준 · 안택수 · 정문헌 · 심재철 · 박찬숙 · 이해봉 · 안상수 · 김영선 · 이군현 · 엄호성 · 박재완 의원 발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2006. 6. 9 정부 제출)

이상 6건 6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

(2006. 5. 3 박승환 · 한광원 · 김명주 · 유기준 · 이인기 · 김성곤 · 김정훈 · 김석준 · 안병엽 · 이시종 · 이성권 · 김광원 · 신상진 · 나경원 · 엄호성 의원 발의)

5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